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역사인물자원으로서 김만일의 생애와  
헌마 업적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産教育學科

金 官 哲

2021年 8月

# 역사인물자원으로서 김만일의 생애와 헌마 업적 연구

指導教授 鄭光中

金官哲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年 8月

김관철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年 8月

A Study on the Life and the Achievement of  
Contributing Horses of Kim Man-il as a Historical  
Character Resource

Gwan-Cheol Kim  
(Supervised by professor Kwang-Joong Je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the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2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wang-Joong Jeong,  
Prof. of Natural and Heritage Education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	1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1
2. 연구범위와 선행연구 검토 .....	5
II. 김만일의 생애 .....	9
1. 김만일의 가계 .....	9
2. 김만일의 의귀 마을에의 정착과 성장 .....	18
III. 김만일의 헌마 업적 .....	31
1. 김만일의 사마목장 개척 .....	31
2. 김만일의 헌마 과정과 헌마 업적 .....	35
IV. 김만일의 헌마 업적에 관한 현대적 평가와 활용 방향 ...	70
1. 김만일의 헌마 업적에 관한 현대적 평가 .....	70
2. 김만일 스토리텔링을 위한 활용 방향 .....	81
V. 결론 .....	84
참고문헌 .....	87
Abstract .....	93

## 표 목차

<표 1> 김검룡 입도 후 김만일 가계의 내력 .....	12
<표 2> 김만일의 행적 기록 문헌 .....	30
<표 3> 제주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선왕조실록』 기사 ...	36
<표 4> 『조선왕조실록』 중 김만일 관련 용어 검색 비율표 ...	37
<표 5> 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선왕조실록』 기사 .....	41
<표 6> 김만일의 헌마 관련 서술 문헌 .....	47
<표 7> 김만일의 관직 내용 서술 문헌 .....	57
<표 8> 『조선왕조실록』 중 김만일 관련 기사 .....	69
<표 9> 김만일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면접조사 결과표 ...	70
<표 10> 김만일 스토리텔링을 위한 분석단계 .....	83

## 그림 목차

<그림 1> 익화군 김인찬 영정 .....	9
<그림 2> 경주김씨 입도시조 김검룡 영정 .....	9
<그림 3> 헌마공신 김만일 영정 .....	13
<그림 4> 김만일 생가터 진입로 .....	13
<그림 5> 의귀공원묘지에서 본 장제동산 .....	14
<그림 6> 반드기왓[班得田] 전경 .....	14
<그림 7> 반드기왓[班得田]과 장제동산 위치도 .....	15
<그림 8> 김만일 생가터 안내석 .....	16

<그림 9> 김만일 생가터 기단석 .....	16
<그림 10> 김만일 생가터 주변 출토 유물 .....	17
<그림 11> 김만일 생가터 위치도 .....	17
<그림 12> 김만일 가계의 이동 경로와 분포도 .....	19
<그림 13> 의귀리 지역 등고선과 김만일 생가터 위치도 .....	23
<그림 14> 제주의 음택혈과 양택혈 위치도 .....	24
<그림 15> 방답진과 임자도 위치도 .....	28
<그림 16> 『탐라순력도』 「산장구마」 .....	33
<그림 17> 산마장의 영역 .....	33
<그림 18> 김만일 묘 입구 .....	78
<그림 19> 김만일 묘 전면 .....	78
<그림 20> 김이홍 묘(좌)와 김만일 묘(우) .....	78
<그림 21> 김만일 묘 비석(전면) .....	79
<그림 22> 김만일 묘 비석(후면) .....	79
<그림 23> 김만일 묘 문인석(동편) .....	79
<그림 24> 김만일 묘 문인석(서편) .....	79

## 【국문초록】

# 역사인물자원으로서 김만일의 생애와 헌마 업적 연구

김 관 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지도교수 정광중

이 논문은 사료분석을 통해 김만일(金萬鎰, 1550~1632)의 생애와 헌마(獻馬) 업적을 종합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료는 역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근본이 된다. 사료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역사의 내용 역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료분석을 통해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에 관한 생애와 업적을 담아내는 연구는 해당 인물에 관한 역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며, 지역문화의 원형(archetype)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즉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지역문화자원으로서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지역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원형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지역의 역사인물에 관한 사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역사인물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은 그 나름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역사 속의 인물은 사료에 바탕을 두어 종합해야 자원의 고유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활용의 폭도 넓힐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해당 인물에 관한 가치 있는 사료에 우선 주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사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사료를 기록하게 된 이유나 배경 등을 조선의 정세와 시대적 상황과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김만일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에서 필



요한 전마 수천 필을 바쳐 고위 관직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주로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 사료는 물론, 이외의 사찬 사료에도 산재해 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김만일에 관한 사료를 바탕으로 우선, 그의 가계(家系)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그의 선대(先代)가 제주도로 내려온 배경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김만일 가계의 제주도에서의 이동 경로와 ‘반득전 혈산의 유전’과 관련하여 의귀 마을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또한 김만일의 젊은 시절에 정병(正兵)과 방답진 첨절제사(防踏鎭 僉節制使)를 지냈던 기록을 검토한 후, 그의 사마목장 개척과 나라에 헌마한 과정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역사에 큰 족적(足跡)을 남겼음에도 일반인들에게 존재감이 희미하거나 부각되지 않은 면이 있는 김만일의 헌마 업적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그리고 김만일 관련 요소를 역사인물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앞서, 김만일 스토리텔링을 위한 분석단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 김만일은 제주사람으로서 조선 시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키운 전마를 나라에 헌마함으로써 국난극복에 공헌했으며, 국방과 외교에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마정사(馬政史) 및 마문화(馬文化) 발달에 기여했음은 물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던 역사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만일은 헌마의 공로로 고위 관직을 제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유일한 헌마공신(獻馬功臣)이 되었고, 역대 제주인으로서 최고의 높은 벼슬에 올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김만일 개인에 관한 분석이지만, 조선 시대 제주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역사인물 김만일이 지역의 역사인물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역사인물, 김만일, 헌마(獻馬), 마정(馬政), 역사인물자원, 헌마공신.

# I. 서론

##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러 부문에서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차별화를 이루려는 시도와 노력을 해왔는데,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 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자기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자원의 가치를 부각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이루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자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지역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 부문에서도 새로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역의 역사인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연구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역사 속의 인물은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요한 역사인물자원으로서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이 널리 알려지면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다. 즉 역사인물자원은 지역문화자원으로서 미래 가치 창출을 통해 문화산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원형(archetype) 자료라 할 수 있다(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6: 1).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역사인물에 관한 연구용역이나 학자들의 역사인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 인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거나, 인물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역사인물은 그의 활용에 앞서 당해 인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종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인물은 자료에 바탕을 두어 종합해야 자원의 고유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활용의 폭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인물에 관한 연구는 가치 있는 사료에 우선으로 주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할 사료(史料)는 역사인물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단서가 되는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포함한다. 문헌이나 유물·유적은 물론, 이미지 사료가 되는 회화, 사진, 구술 역사(oral history)와 전승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1)</sup> 즉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승정원일기』, 『국조보감』 등 관찬 사료와 사찬 사료는 물론, 김만일에 관한 내용이 서술된 문헌과 논문, 신문 기사 등을 인용하였다.

지금까지 ‘역사인물’에 대한 명확한 의미나 기준을 두고 논의된 적은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역사인물을 선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역사인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최명진, 2019: 11).<sup>2)</sup>

이 논문에서 ‘역사인물’은 중앙과 지역을 통틀어 역사적 사건과 기록에 남은 특별한 인물로서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추모되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역사인물이 남긴 유·무형의 흔적이 후세대에 전해져 역사인물자원으로 활용되는 등 이를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최명진, 2019: 10).

김만일(金萬鎰; 1550~1632)은 조선 시대 나라가 어려울 때 수천 필의 전마 등을 헌마한 공로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겸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을 거쳐 1628년(인조 6)에는 종1품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제수된 ‘헌마공신(獻馬功臣)’으로 국가사와 지방사에 등장하는 역사인물이다. 여기서 ‘헌마(獻馬)’란 글자 그대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나라에 말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5: 74).

김만일은 단순히 관원(官員)을 지향했던 인물이 아니라, 말[馬]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고위 관원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 제주 지역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강제훈, 2014: 4). 그러나 오늘날 김만일이라는 인물이나 그가 남긴 발자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

---

1) 역사학에서 1차 사료는 동시대 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자서전, 유물, 편지, 사진 등을 의미하고, 2차 사료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후세 사람들이 그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연구, 논문, 그리고 서적 등과 같은 2차적 증거 자료로써 1차 사료를 보충해주는 자료를 말한다(<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1년 5월 30일).

2) 최명진(2019)의 연구에서는 역사인물의 객관적 속성으로 문헌기록 또는 유·무형자료의 존재, 두드러진 행적, 비범한 출신과 능력, 희생적 면모, 당대 정치·사회적 관념에 저항, 극복 등과 동일시, 당시 사회적 사건, 중요한 역사인물에 직간접적으로 연계, 역사적 발전이나 이념에의 기여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지만, 매우 복잡적이며 중층적이라 지적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의 행적과 업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인물자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사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하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지역 역사인물자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배경이자 연구목적이라 할 수 있다.

김만일의 헌마 과정과 업적 등은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군일기(정초본)』, 『인조실록』,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등에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국조보감』, 『응천일록』, 『해외문견록』, 『정헌영해처감록』, 『탐라지초본』, 『임하필기』, 「제주풍토기」, 「탐라기년」, 「파한록」 등에도 김만일과 관련된 일화 등 헌마와 관련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전하고 있다.

김만일에 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단행본, 논문, 신문 기사 등에 인용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정확하지 않아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 또한 김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기본 취지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예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김만일이 말을 최초로 헌마한 시기와 헌마한 공로로 제수된 관직 등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으며, 『광해군일기(중초본)』의 김만일 관련 내용이 정초본에는 누락되거나 삭제된 경우도 있다. 나아가 김만일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문헌 중에는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다른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처럼 김만일과 관련된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주장하는 학설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으며, 『광해군일기(중초본)』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와 추론에 입각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1차 사료로 인용하여 김만일이 나라에 헌마한 과정과 업적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국역문과 원

문 모두를 연대순으로 검토·정리하였고, 지금까지 김만일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사서류, 단행본, 논문, 보고서, 신문 기사, 웹사이트 및 기타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김만일에 관해 전하는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김만일 생가터, 묘역 및 관련 유적지를 여러 차례 답사하여 촬영한 현장 사진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였으며, 김만일과 김만일 가계의 인물 사진 등도 첨부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거쳐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만일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역사인물자원으로서 김만일을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앞서 ‘김만일 스토리텔링’을 위한 조사와 분석단계에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사료의 인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5~2007년 3년간 추진한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사업에 의해 2006년 개시된 『조선왕조실록』 원문과 국역문 웹 서비스와 2008년부터 개시된 원문과 국역문을 활용하였으며, 사료의 국역문을 먼저 인용하고 이어서 원문과 출처를 밝히는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검색 기능을 향상시키고 웹 페이지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5년 12월 새롭게 개선된 『조선왕조실록』 웹 서비스(<http://sillok.history.go.kr>)가 문을 열어 사료를 인용하여 연구하는 데 전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사업을 시작하여 번역한 『국역조선왕조실록』(1993), CD-ROM 『국역조선왕조실록』(서울시스템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1995)과, 고찬화·김천형(2002)의 『제주의 근대사: 조선왕조실록』을 참조하여, 원문을 국역하는 데 있어 서로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더 쉽고 정확한 해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국역문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견해를 덧붙여 쉬운 용어로 바꾸거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같은 사안과 내용에 관해서 『조선왕조실록』의 사료와 다른 사료가 서로 다른 내용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우선하여 인용하였다.

## 2. 연구범위와 선행연구 검토

이 논문에서는 김만일의 가계(家系)와 출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김만일 가계가 제주도로 내려오게 된 연유와 입도(入島) 후의 이동 경로 및 성장 과정을 도표와 그림 자료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김만일이 성장하면서 사마목장(私馬牧場)을 개척하여 양마(良馬)를 산출하였고, 이를 나라에 헌마하는 과정과 업적을 살펴볼 것이다.

김만일 가계는 무슨 사연으로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었고,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의귀리 지역에 정착했으며, 이후 사마목장에서 수많은 말을 키우면서 나라에 헌마한 과정과 업적을 사서류, 단행본, 논문, 보고서, 신문 기사, 웹사이트 및 기타 자료와 전하는 이야기 등을 종합하여 고찰할 것이다.

즉 김만일의 출생, 성장 과정, 헌마 업적 등 전 생애에 걸친 한 인간의 궤적을 살펴보고, 김만일의 헌마 업적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역사인물자료로 김만일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한다.

김만일은 자신이 개척한 사마목장에서 양마(良馬)를 많이 산출하였음은 물론, 수많은 전마 등을 나라에 헌마하여 나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높은 관직을 제수받은 역사인물이다. 이러한 과정과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의 사료를 기초로 가능한 한 연대순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종합하기 위하여 김만일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김만일과 관련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는 조성운(199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경주 김씨 가(家)의 소장 고문서 가운데 호구단자와 준호구 분석을 통한 조선 후기 지배 세력의 신분이나 가족 구성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김만일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김만일이 많은 말을 나라에 바친 이유로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정치적 위세 획득을 통한 경제적 부의 유지를 들고 있다.

조성운(2001)은 이어서 『조선왕조실록』에 기초하여 좀 더 상세하게 김만일의

현마 과정을 기술하며,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 처음으로 말을 바쳤는지도 논증하고 있으며, 경주 김씨 가의 산마감목관직(山馬監牧官職) 세습에 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논문의 핵심 내용은 김만일 집안이 목축업을 통해 어떻게 부를 축적하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힘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피는 관점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김경옥(2000)은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김만일을 언급하고 있다. 즉 제주도는 사실 목장이 활발히 운영되는 곳인데, 김만일 목장을 한 사례로 들고 있으며, 김일우(2010)는 만일 공의 말 사육과 현마공신으로의 통칭화, 산마장과 산마감목관의 설치를 다루고 있다. 특히 김만일 관련 역사 유적을 연구한 김일우(2011)의 논고에서는 김만일 묘역, 김만일 생가터, 김만일 가묘터, 김만일 가게 소장 고문서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위의 연구와는 달리 김익수(2010)의 논고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많은 말을 사육했던 김만일이 전마를 바쳐 실직(實職)을 받은 과정을 시대상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광해군 때인 1618년 11월 제주 위리안치(圍籬安置)의 명을 받은 간옹(良翁) 이익(李瀾)과 김만일의 딸 경주 김씨와의 세 번째 결혼의 결과로 이어지는 고흥진(高弘進), 김진용(金晉鎔) 그리고 제주목사 이괴(李檜)와의 관계 속에서 감목관제를 두게 된 경위 등을 서술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김관철(2011)의 연구는 김만일 출생과 내력을 포함한 김만일 가게의 의귀 마을로 이주·정착한 과정, 나아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중 김만일의 현마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권무일(2013)의 소설에서는 “조선 시대 때 말이 바로 국력의 상징임을 알았기에, 김만일의 시선은 대평원을 넘어서 나라의 현실과 장래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김만일의 생애와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김만일은 제주의 자존심이며, 그의 정신은 제주의 정신, 나아가 나라 건너의 땅, 변방의 땅, 착취와 멸시의 땅에 지나지 않던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제주의 가치를 만방에 알린 거인이었다.”라고 하고 있다.

강제훈(2013)의 연구에서는 말 사육과 관련하여 김만일은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동시에 조선의 고위직 관원(官員)이기도 하지만, 현마공신설에 대한 재검토 내용으로 연구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산마감목관 세습이 김만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관직을 특정 집안에서 독점하는 것이 조선에



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김만일의 공적을 연구한 김관철(2016)의 연구에서는 조선의 국내 정세와 국난극복을 위한 헌마 과정, 산마장 경영을 통해 나라에 군마를 공급한 내용과 의의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2007)이 실행한 연구에서는 김만일과 산마장사(山馬場史), 김만일 가게 산마장의 입지환경과 유적, 김만일 분묘와 생가터 및 가묘터에 대한 역사 고고학적 조사, 김만일 가게 소장 고문서, ‘말의 고장’ 제주와 김만일의 생애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대체로 기존 저서나 발표된 논문을 편집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주관광공사(2014)가 주도한 연구에서는 제주마의 중요성과 연혁, 조선 시대 목마장, 제주마 관련 주요 유적지, 김만일의 일생을 포함한 김만일 사목장, 김만일 헌마의 시초에 관한 검토와 스토리텔링 활용방안으로 제주마와 김만일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14)의 실행 연구에서는 김만일 표준영정(標準影幀) 제작을 위한 김만일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정리한 바 있다.

나아가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2015)의 연구에서는 제주권 지역의 말 문화 향토 자원 중 인물 편에 김만일에 관한 내용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인용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2016)의 연구에서는 제주마 역사를 시작으로 말 산업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및 전략, 헌마공신 김만일 성역화 사업 타당성 분석, 제주 말 산업 전통과 연계한 발전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2015)가 집필한 『그림을 곁들인 헌마공신 김만일 평전』은 지금까지의 김만일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그간의 김만일 관련 연구물의 오류를 바로잡고, 동시에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사실도 상당히 밝혀내고 있다. 김만일의 최종 관직에 관한 혼선의 정리, 『광해군일기』의 중초본과 정초본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논거 제시, 강제훈(2013)이 제시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거 제시를 통한 반론, 산마감목관제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인의 일생에 대하여 필자의 논평을 곁한 평전이면서도 김만일 가게의 내



력에 관한 서술이 거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김만일에 관한 연구는 그의 생애와 나라에 헌명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현마를 통한 김만일의 업적과 관직 제수, 그리고 그의 일화에 치중하여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 인간을 역사인물로 평가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해당 인물이 남긴 과거의 흔적들을 가능한 한 사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김만일과 관련된 일화(逸話)나 구전으로 전하는 내용도 개인의 일생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부분적으로 서술할 것이며, 사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역사적 상상력(歷史的 想像力)’을 발휘하여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도 병행하고자 한다.

## II. 김만일의 생애

### 1. 김만일의 가계

김만일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의 가계(家系)를 입도(入島) 전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명문거족의 후손으로 제주에 정착하게 된 경주김씨 입도시조 김검룡(金儉龍, 1365~?, <그림 2>)의 7세손인 김만일이 나라에 헌마한 것이 계기가 되어 높은 벼슬에 오르고 가문을 중흥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김검룡이 입도한 후 150여 년 동안 당시 인물의 평가 기준이 되었던 문장(文章)과 도덕, 그리고 관작(官爵)이 외면됐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간제주』, 2016년 12월 13일).



<그림 1> 익화군 김인찬 영정<sup>3)</sup>  
출처: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소장.



<그림 2> 경주김씨 입도시조 김검룡 영정<sup>4)</sup>  
출처: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소장.

3) 김민규 화백(익화군 23세손)이 2014년 10월에 제작했다.

4) 김현철 화가가 2016년 10월에 제작했다.

김인찬(金仁贊, 1336~1392, <그림 1>)은 김검룡의 부친이자, 김만일의 7대조로서 조선 건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에 살던 집[潛邸]에서부터 시위·보필하여 왕으로 등극시킨 킹메이커였고, 함경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면 무장 세력의 구심점이었다. 이성계 세력의 역성혁명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그것을 구상하고 힘으로 지켜낸 공훈으로 조선개국 일등공신에 책봉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익화군에 봉군되고 중추원사(中樞院事)에 임명된 후 단 이틀 후에 김인찬에게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쳤다. 김인찬에 대한 개국공신녹권에 ‘불행신몰(不幸身沒)’이라 기록했듯이,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의 죽음은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나라의 불행이었다. 이 불행한 사건은 바로 태종 이방원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방원과 그 추종 세력은 세자 책봉에서 자신을 옹호하지 않은 김인찬에 대해 원한을 품었고, 더불어 군사력의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던 김인찬을 최대의 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방원이 집권한 후 김인찬 후손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사실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 하겠다(김성태, 2015: 34).

김인찬 사후에도 태조 이성계는 그에 대해 각별히 배려하여 개국일등공신(開國一等功臣)에 봉하고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이란 공신호를 내렸다. 김만일은 바로 조선개국일등공신인 김인찬의 8세손이다.

그런데 조선개국일등공신 김인찬의 셋째 아들인 김검룡이 제주에 내려왔다. ‘그는 도대체 어떠한 사연으로 제주에 왔는가’에 관한 여러 궁금증이 있다. 이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인찬은 태조가 등극한 지 10여 일 만에 죽었고, 신왕조 창업기의 정쟁과 살육이 끊임없던 당시 정쟁의 한 중심축에 있던 김인찬 으로서는 정쟁의 희생물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검룡이 절해고도 제주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홍식, 2007: 63).

김검룡이 제주로 내려온 사연과 관련하여, 그는 감목사(監牧使)로 제주에 입도(入島)하여, 1402년(태종 2)에 양마 6필을 생향인 경기도 양근현 마유봉(楊根縣馬遊峯)<sup>5)</sup>에 보내어 헌마한 후 제주도지관(濟州都知管)이 되었다는 기록과 1404년

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유명산(有明山)은 원래

(태종 4)에 제주도지관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직에서 물러나 정의현 오조리에 정착하여 서당을 열어 후진 교육에 힘썼고, 흥학에 전념한 그의 학문과 명성이 경향(京鄕)에까지 미쳤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제주도, 1993: 811, 『일간제주』, 2016년 12월 13일).

김검룡이 제주에 정착한 후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관직을 지냈다. 그의 아들 김용신은 수의부위 우군부사정, 그의 손자 김맹수는 승의부위 충무위섭사정, 김중수는 승의부위 우군사정, 김계수는 병절교위 용양위부사직을 지냈다. 이어 김검룡의 4세손인 김자신은 용양위부사직, 천호, 건공장군을 지냈으며, 1620년(광해군 12)에 통정대부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김자신의 아우 김자근은 건공장군, 막내인 김자중은 적순부위 용양위부사맹을 지냈다.

이어 김검룡의 5세손 김보는 충의교위, 충무위부사직을 지냈으며, 가선대부 형조참의에 추증되었다(1620). 김겸은 어모장군과 좌수를 지냈으며, 김희는 통정대부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김양필은 조선 중종 때의 문인으로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썼으며, 충암 김정에게 배우고 생원시에 합격하여 제주향교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1534년(중종 29) 9월 제주목사 심연원을 도와 제주 향교의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학문을 장려하였다(김봉옥, 2001: 129).

김만일의 부친으로 김검룡의 6세손인 김이홍은 어모장군, 용양위부사과를 거쳐,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겸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추증되었다(1620). 그리고 김이홍의 동생 김언홍은 적순부위, 용양위부사직, 어모장군, 유향좌수를 지냈으며 형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김운추는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 용양위부사과, 어모장군을 지냈고, 김득정은 수의교위를 역임했다.

이처럼 김검룡이 입도한 후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관직을 지낸 것으로 봐서도 인맥의 줄기는 꾸준히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강용삼, 1980: 118~119). 위에서 살펴본 김검룡이 제주에 입도한 후 김만일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후손들의 내력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말을 방목했다’는 뜻의 ‘마유산(馬遊山)’으로 불렸다.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마유산’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검색일: 2021년 2월 1일).

<표 1> 김검룡 입도 후 김만일 가계의 내력

항목 세(世)	이름	생몰 연대	관직 및 품계	비고
입도 시조	김검룡 (金儉龍)	1356~ ?	수의부위(修義副尉, 종8품) 우령산원(右領散員, 정8품)	정의현 오조리 거주
2	김용신 (金用信)		수위부위(修義副尉, 종8품) 우군부사정(右軍副司正, 종7품)	진사리(성읍리) 거주
3	김맹수 (金孟粹)	1395~ 1463	승의부위(承義副尉, 정8품) 충무위섭사정(忠武衛攝司正, 종7품)	묘: 전남 순천시
	김중수 (金仲粹)		승의부위(承義副尉, 정8품) 우군사정(右軍司正, 정7품)	
	김계수 (金季粹)		병절교위(秉節校尉, 종6품) 용양위부사직(龍驤衛副司直, 종5품)	정의현 진사리 → 수망리
4	김자신 (金自愼)		용양위부사직(龍驤衛副司直, 종5품) 천호(千戶, 5품) 건공장군(建功將軍, 종3품)	수망리 거주 추증: 通政大夫 戶曹參判, 1620년
	김자근 (金自勤)		건공장군(建功將軍, 종3품)	
	김자중 (金自重)		적순부위(迪順副尉, 정7품) 용양위부사맹(龍驤衛副司猛, 종8품)	
5	김보 (金譜)	?~ 1562	충의교위(忠毅校尉, 정5품) 충무위부사직(忠武衛副司直, 종5품)	수망리 거주 추증: 嘉善大夫 刑曹參議, 1620년
	김겸 (金謙)	1503~ ?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	묘: 송당리 돌오름
	김희 (金熙)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	추모비: 한경면 조수리
	김양필 (金良弼)		성균진사(成均進士)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 제주교수(濟州教授, 종6품)	묘: 제주시 영평동
6	김이홍 (金利弘)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 종6품)	추증: 資憲大夫 工曹判書兼 知義禁府事兼 五衛都摠府都摠管, 1620년
	김언홍 (金彦弘)	1535~ ?	적순부위(迪順副尉, 정7품) 용양위부사직(龍驤衛副司直, 종5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	매돈지(도련2동) 거주 추증: 刑曹參判, 1620년
	김운추 (金運秋)		무과(武科)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 종6품)	묘: 송당리 돌오름
	김득정 (金得靖)	1524~ ?	수의교위(修義校尉, 정7품)	묘: 제주시 해안동→제주시 연동
7	김만일 (金萬鎰)	1550~ 1632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2품) 오위도총부도총관 (五衛都摠府都摠管, 정2품)	의귀리 거주

자료: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2005)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의 관직명 사전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내용 구성.

여기서 김만일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에 대한 추증(追贈)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종친 및 문·무관으로 실직 2품 이상은 3대를 추증한다. 부모는 자기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각각 1등급 낮추어서 추증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김만일이 1620년(광해군 12)에 정2품인 오위도총부도총관과 지중추부사를 겸직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추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김만일의 높은 관직 제수로 말미암아 조상에게도 영광스러운 명예가 주어진 것이다.



<그림 3> 헌마공신 김만일 영정

출처: (사)헌마공신김만일기념사업회 소장.

<그림 4> 김만일 생가터 진입로

출처: 연구자 촬영(2021년 4월 15일).

김만일(<그림 3>)은 1550년(명종 5) 7월 14일 정의현 의귀리(旌義縣 衣貴里)에서 태어나 1632년(인조 10) 10월 27일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살았던 명종, 선조, 광해군 및 인조 시대에 조선의 정세는 전쟁 등으로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다. 제주의 상황도 왜구의 끊임없는 침탈로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처럼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에 나라에서 절실히 필요한 수천 필의 전마 등을 도맡아 감당해 냈고, 이에 대한 공훈으로 ‘헌마공신(獻馬功臣)’이



되었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2품) 겸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정2품)을 거쳐 1628년(인조 6)에 숭정대부(崇政大夫, 종1품)에 제수되었다. 이러한 그의 전설적이며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삶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끌 만했다. 그러기에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하고 있다.

김만일이 태어난 날은 우연인지 운명인지 바로 백중날<sup>6)</sup>이다. 백중(百中)에 관한 좌동렬(2010: 40~43)의 연구 내용을 보면, 제주는 본토와는 달리 음력 7월 14일 밤 자시(子時)에 백중제를 지냈다. 백중제는 말과 소들이 아무 탈 없이 번성하기를 비는 목축 의례라 할 수 있다. ‘테우리[牧子]<sup>7)</sup>들이 제물을 정성스럽게 장만하여 그해 목축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인 셈이다(강만익, 2018: 334).

김만일의 고향인 의귀리 지역에서도 다음의 <그림 5>, <그림 6>,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마을 목장 내에 있는 ‘장제동산’과 ‘반드기왓[班得田]’에서 백중제를 지냈으며, 그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의귀리 지편찬위원회, 2016: 333).



<그림 5> 의귀공원묘지에서 본 장제동산  
출처: 연구자 촬영(2015년 10월 2일).



<그림 6> 반드기왓[班得田] 전경  
출처: 의귀리마을회 촬영(2015년 10월 2일).

- 6) 백중이란 목동의 이름이며 이 목동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가 백중제요, 그 제삿날이 7월 14일로서 백중날이라는 설이 있다. 또한 백중은 이 무렵에 여러 가지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 ‘백 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여 유래된 말이고, 중원은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삼원(三元)의 하나로서 이날에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 데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또한 망혼일이라 한 까닭은 망친(亡親)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음식·과일을 차려 놓고 천신(薦新)을 드린 데에서 비롯되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검색일: 2021년 2월 1일).
- 7) 몰테우리는 ‘몰테[馬屯]를 기르는 사람 즉,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를 말한다. ‘테우리’라는 용어는 본래 ‘모오다’는 뜻을 가진 중세 몽골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박원길, 2005: 72).



<그림 7> 반드기왓[班得田]과 장제동산 위치도  
출처: 카카오맵 캡처 후 연구자가 구성.

다음은 김만일의 출생과 관련하여, 그가 태어난 집터에 관한 내용 등을 강만익(2007)의 학술조사 연구 내용과 의귀리지편찬위원회(2016)에서 편찬한 마을지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만일 생가터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549-2번지에 있다(<그림 4>). 당시 건물의 목재는 느티나무와 소나무였고, 처마는 기와, 지붕은 초가로 잘 지어진 5칸 집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생가터 뒤로는 마을 숲인 ‘뒷술’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넓고 울창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차가운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주며, 배산임수(背山臨水)에서 산의 역할을 독특히 하였다. 뒷술은 뒤쪽으로 마치 ‘병풍(屏風)’처럼 펼쳐진 100m 지대와 맥을 이루어 연결되며 의귀리를 감싸 안고 있는 형국(形局)이다(<그림 13>).

기록에 의하면, 김만일의 부친인 김이홍(<표 1>)은 수망리에 살다가 의귀리에 이주했다고 한다. “수망리 남쪽 3리 허(許)에 설동하여 이주”했다는 것이다(경주 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5). 여기서 수망리 남쪽 3리 지경은 현재의 의귀리 지역을 말하며, 김이홍이 의귀리로 이주한 시기는 김만일이 태어난 1550년 전후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김만일 생가터는 <그림 4>처럼 ‘올레’가 길게 나 있는데, 올레는 제주 민가(民家)만이 갖는 특유의 공간으로 주택의 내부와 외부 영역을 연결해주며 외부로부터 시선을 차단해서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일간제주』, 2017년 1월 3일). 또한, 총면적 2,060㎡의 생가터에서 생가의 원형을 짐작할 만한 단서는 단지 기단석 석렬 일부와 몇 개의 주춧돌만 남아 있을 뿐이다(<그림 9>).



<그림 8> 김만일 생가터 안내석  
출처: 연구자 촬영(2020년 4월 15일).



<그림 9> 김만일 생가터 기단석  
출처: 연구자 촬영(2017년 1월 2일).

현 민가의 돌담과 바로 주위 과수원 일대에서는 연자방아석, 건물 초석으로 쓰였던 현무암질 석재, 기단석 등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돌담에는 주로 건물 기단석으로 사용되었던 석재, 민가 북쪽 돌무더기 더미에는 건물의 초석재가 많이 쌓여 있다.

민가 주변 과수원에는 도자기를 비롯한 다량의 기와편도 수습되었다(<그림 10>). 기와편은 모두 평기와로 기와의 등문양은 무문과 파상선문, 집선문편 등이 확인되었다. 도자기는 백자편이 대부분이나 간혹 분청사기편도 보인다. 이 가운데는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명품에 해당하는 분청사기 투각문병의 일부와 체기로 사용했을 백자 굽접시 과편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생가터 건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재력과 위세를 지닌 사람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림 10> 김만일 생가터 주변 출토 유물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그림 11> 김만일 생가터 위치도  
출처: 카카오맵 캡처 후 연구자가 구성.

19세기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도에는 기와집의 존재가 일부 관아건물에 국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김만일 생가터 수습의 기단석과 대량 기와 및 명품의 백자와 분청사기 편 등은 김만일 집안의 재력과 위세가 상당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박용범, 2007: 37~38).

다음은 김만일 이름에 관한 내용이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웃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며, 이름의 소중함을 강조해 왔다. 이름을 지을 때면 한자가 가진 오행(五行), 즉 자원오행(字源五行)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적용해 왔다. 한자는 기(氣)와 질(質)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상을 보고 만들어진 상형문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字)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오행 기운을 상생 시켜 후손들의 번성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일간제주』, 2017년 1월 24일).

김만일의 이름은 ‘성품이 좋고 활달하여 대업을 이루고, 위인이 준수하고 영리하여 지도자가 되는 선천운을 타고났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주영제, 1994; 정보국, 1994). 이처럼 그의 이름 풀이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며, 선조들의 작명하는 지혜도 엿볼 수 있다.

## 2. 김만일의 의귀 마을에의 정착과 성장

김인찬의 셋째 아들인 김검룡은 조선 초 제주도에 내려와 제주도 동쪽 지역인 현재의 성산읍 오조리에 정착하였고, 그 후 김만일 가계는 점차 제주도의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의귀 마을에 정착하였다. 여기서는 김만일 가계의 시기별 이동 경로와 분포도(<그림 12>)를 살펴보고 의귀 마을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과 연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만일의 6대조인 김검룡은 제주도에 내려온 이후 정의현 오조리에 정착하여 서재(書齋)를 ckdtjfgkdu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고, 1402년(태종 2)에는 성주(星主) 고봉례(高鳳禮)와 왕자(王子) 문충세(文忠世)와 협조하여 국왕 또는 왕실에 정조·탄일 등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바쳤던 진상마(進上馬)를 헌마하여 경기도 양평군 마유봉(마유산)에서 사육하였다. 이후 김검룡이 세상을 떠나자 김검룡의 문인(門人)인 김충광(金忠光)이 치상례(治喪禮)를 하였다(장삼현·문복희 엮음, 2006: 46~47; 문영택(2017: 74);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143, 358).

김검룡이 처음에 왜 오조리에 정착했는지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오조리가 조선 시대에 배가 드나드는 정의현의 관문으로 발달했으며, 군마의 수송 등이 본 포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곳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오홍석, 1975: 46).

김검룡의 2세손 김용신에 이어 3세손 김계수는 처음에 진사리<sup>8)</sup>에 거주하다가 1460년대 이후 수망리 구동<sup>9)</sup>으로 이주하였고, 4세손 김자신, 5세손 김보에 이르기까지 수망리에 거주하였다.

이어 김검룡의 6세손이자 김만일의 부친인 김이홍은 1550년경에 ‘수망리 남쪽 삼리허에 설동하여’ 이주하였는데, 바로 이곳이 현재의 의귀 마을이다(김동전, 2001: 157,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5). 김이홍이 의귀 마을에 이주할 즈음인 1550년 김만일이 태어났다. 김만일은 의귀 마을에 거주하면서 선대(先代) 대대로 이어오는 말의 개량(改良)과 번식(繁殖)에 전념하면서 사마목장을 개척·발전 시켜 나갔다.

8) 지금의 성읍리 서북 화원동 문광 옛터(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144).

9) 현 수망리 속칭 ‘동백남밭’(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144).



<그림 12> 김만일 가계의 이동 경로와 분포도  
출처: 카카오맵 캡처 후 연구자가 구성.

김만일의 부인으로는 정부인(貞夫人) 남평문씨(南平文氏) 서봉(瑞鳳)의 女, 숙부인(淑夫人) 창녕성씨(昌寧成氏) 덕포첨사(德浦僉使) 경륜(敬倫)의 女, 창녕성씨(昌寧成氏) 그리고 밀양박씨(密陽朴氏) 등 4명을 두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김대명(金大鳴, 1575~1629), 김대성(金大聲, 1578~?), 김대길(金大吉, 1608~1668), 김대진(金大振, 1611~1685), 김대중(金大鍾), 김대원(金大遠, 1617~?), 김의동(金義同) 등의 일곱 아들과 외동딸(1596~1666)을 슬하에 두었다(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5~22)<sup>10</sup>).

특히, 김만일의 외동딸 경주 김씨는 간옹 이익(李瀾, 1579~1624)과 1619년 결혼하여 1621년 인제(仁濟)를 낳았는데,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仁穆大妃)가 폐위되어 모(母)인 노씨(盧氏)가 관비(官婢)가 되어 제주에 유배되고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이 일어나자, 이익은 그해 5월 1일 방환되어 우선 귀향하면서 경주 김씨와 인제는 제주에 남겨두고 장남 인실(仁實)만 데리고 서울로 떠났다(김익수, 2010: 159). 그 후 제주에 남은 이인제의 후손들은 현재까지 경주 이씨의 가계를 이어오고 있다.

10) 정부인 남평문씨 서봉의 여 사이에서 김대명, 김대성, 딸을 낳았고, 숙부인 창녕성씨 덕포첨사 경륜의 여 사이에서 김대길, 김대진을, 창녕성씨와의 사이에서 김대중, 김대원을, 그리고 밀양박씨와의 사이에서 김의동을 낳았다(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5~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만일 가계는 오조리→성읍리→수망리→의귀리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포구취락(浦口聚落)인 오조리에서 내륙 입지인 성읍리, 수망리와 의귀리에 이주한 후 본 입지를 거점으로 하여 계속해서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서, 태흥, 수산, 토평, 신호, 호근, 호원, 하원, 중문 등 △로 표시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포하였다.

이처럼 제주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생활 조건의 적지(敵地) 선정을 위한 이산(離散)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라산 서사면의 판포, 조수, 신도 등지를 제외하면 대개 한라산 남사면의 남원, 서귀, 중문 등에 집중되어 지배적 권문호족으로 등장하였고, 그것은 또 예외 없이 동쪽 취락의 현상을 보였다(오홍석, 1975: 46). 또한 이동의 원인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지만 관직이나 농사와 목축, 그리고 결혼과 같은 사유 등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의 내용 중에 ‘김이홍은 1550년경에 수망리 남쪽 삼리허에 설동(設洞)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때 김이홍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마을을 설촌(設村)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마을은 형성되어 있었고, 경주 김씨 가계가 의귀 마을에 정착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김만일이 살았던 전후의 기록을 통하여 그 당시 의귀리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김만일이 52세가 되던 해의 기록인 [사료 1]과 김만일이 세상을 떠난 후 50년이 지난 기록인 [사료 2]와 [사료 3]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의귀리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정의현의 큰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사료 1]

“15일 기묘, 맑고 북풍이 크게 불었다. 서귀방호소에 머물렀다. 새벽에 망궐례를 행하고, 아침에 향교에 알성하였다. 향교는 성내 북쪽에 있는데 담이 없어 대를 심어 울타리로 하였다. 교생 10여 명의 무리가 모두 말[言]을 분간하기 어려워 같이 말 할 수 있는 자가 매우 적었다. 그로 인하여 현 창고에 가서 군량을 사점하고, 식후에 떠나서 ‘오이리’에 도착하였다. 점심을 하고 저녁에 서귀방호소에 들었다(十五日己卯 晴 北風大吹 宿西歸防護所 曉行望闕禮 朝謁聖于鄉校 校城北隅 ○庭荒蕪 無垣墻 植竹爲籬 校生十餘輩 皆質質可與語者絕少 仍往縣倉查 點軍糧 食後發行 到五耳里中火 夕入西歸防護).” [김상헌 저, 박용후 역, 1972: 126~127].

[사료 1]은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sup>11)</sup> 권3의 기록으로 김상헌이 성읍리 관아(官衙)에서 군량을 사점(查點)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원님로를 따라 의귀리에 도착해 점심을 먹은 후에 서귀방호소(西歸防護所)로 들었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 ‘오이리(五耳里)’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오이리가 현재 의귀리라는 사실은 전후의 문맥과 다음의 [사료 2]와 [사료 3]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를 알 수가 있다. 더욱이 지리적 위치가 관아(성읍리)에서 의귀리까지는 대략 12km이고, 의귀리에서 서귀포까지는 대략 16km인 점을 고려하면, [사료 2]의 “관아에서 의귀까지는 30리이고, 의귀에서 서귀까지는 40리이다.”라는 내용과 거리가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사료 1]에 기록된 ‘오이리’는 현재의 의귀리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료 2]는 김성구(金聲久)의 『남천록(南遷錄)』<sup>12)</sup>에 있는 기록(1679년 9월 13일)으로 마을 명칭이 ‘의귀(衣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의귀원(衣貴院)’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 [사료 2]

“의귀원에서 점심을 먹고 달이 뜬 뒤 돌아왔다. 관아에서 의귀까지는 30리이고, 의귀에서 서귀까지는 40리이다. 길은 모두 바닷가여서 험한 곳은 없었으나, 70리를 지나는 동안 의귀리와 우둔리(효돈) 두 마을을 제외하고는 사람 사는 자취가 없었다. 거친 떠들만 들에 가득하고 보이는 것이 끝이 없다. 북으로는 한라산이 하늘을 떠받치고 남쪽으로는 큰 바다가 하늘에 닿았다. 이따금 소와 말이 수백 필씩 무리를 지어 수초가 무성한 곳을 왕래하면서 뜯고 마시는 것이 보이는데, 아름다운 비단을 펼쳐 놓은 것과도 같다(午飯于衣貴院 東月而還 自官至衣貴三十里 自衣貴至西歸四十里 而路皆並海無險澁處 所經七十里之間 除衣貴牛屯兩村 絕無人烟 荒莽遍野 極望無際 北則擎岳撐空 南則大海接天 時見牛馬成屯 擇水草豐茂處 往來飲○ 若雲錦離披).” [김봉옥 편역, 1994: 220].

이 기록을 통해, 1679년 이전에 의귀리에 ‘의귀원’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院)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관원(官員)을 위하여 교통의 요지에 설치하여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관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관원이 식사하거나 쉬기도

11) 김상헌(1570~1652)의 『남사록』은 1601년(선조 34)에 ‘길운절의 제주 반란 음모사건’을 뒷수습하기 위하여 안무어사로 제주에 내려온 김상헌이 제주에 머물면서 민정을 살핀 내용을 일기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검색일: 2021년 2월 1일).

12) 김성구(1641~1707)는 1662년(현종 3) 사마시에 급제했고, 1669년(현종 10)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679년(숙종 5) 장령(掌令)으로 있을 때 ‘허목(許穆)의 대차(大筈) 사건’에 관련되어 정의현감으로 좌천되었다. 『남천록』은 그 경위와 현감 재직 때의 일들을 1679년(숙종 5) 3월 12일부터 1683년(숙종 8) 1월 16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김봉옥 편역, 1994: 198).

하고, 말들에게 먹이를 먹이거나 쉬게 하였다.<sup>13)</sup>

이 당시 산남 지방에는 중문원과 의귀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산북 지방과는 다르게 원이 마을 안에 설치되어 마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으며, 원(院)이 설치된 지역에까지 거주지가 확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산남 지방의 대정과 정의를 연결하는 관도(官道)는 해안선으로부터 2~3km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관도 주변에는 방풍은 난지의 자연적 혜택, 외침내환에 대한 안전성 및 경제적 이중효과 등 생활 조건이 다른 곳에 비하여 우월했으므로 중세 사회의 중심적 마을이 이 지역에 주로 형성되었다(오홍석, 1975: 59).

이처럼 의귀리는 당시 성읍리 관아에서 서귀방호소로 가는 길목이었으며 행정과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귀리는 원의 설치로 말미암아 마을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에 소와 말들이 수백 필씩 방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1679년(숙종 5) 9월 16일에 제주안핵겸순무어사(齊州按覈兼巡撫御史)로 임명된 이증(李增)이 그해 10월 한양을 떠나 12월 제주의 화북포에 도착했다. 그는 이듬해인 1680년(숙종 6년) 4월까지 5개월간의 제주도 체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당일에 보고 들은 일들을 일기체로 엮어낸 책이 바로 『남사일록(南槎日錄)』이다. 이 책은 이보다 앞서 펴낸 김정희의 「제주풍토기(齊州風土記)」,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과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 등을 인용하고 있다. 다음의 [사료 3]은 1680년 2월 20일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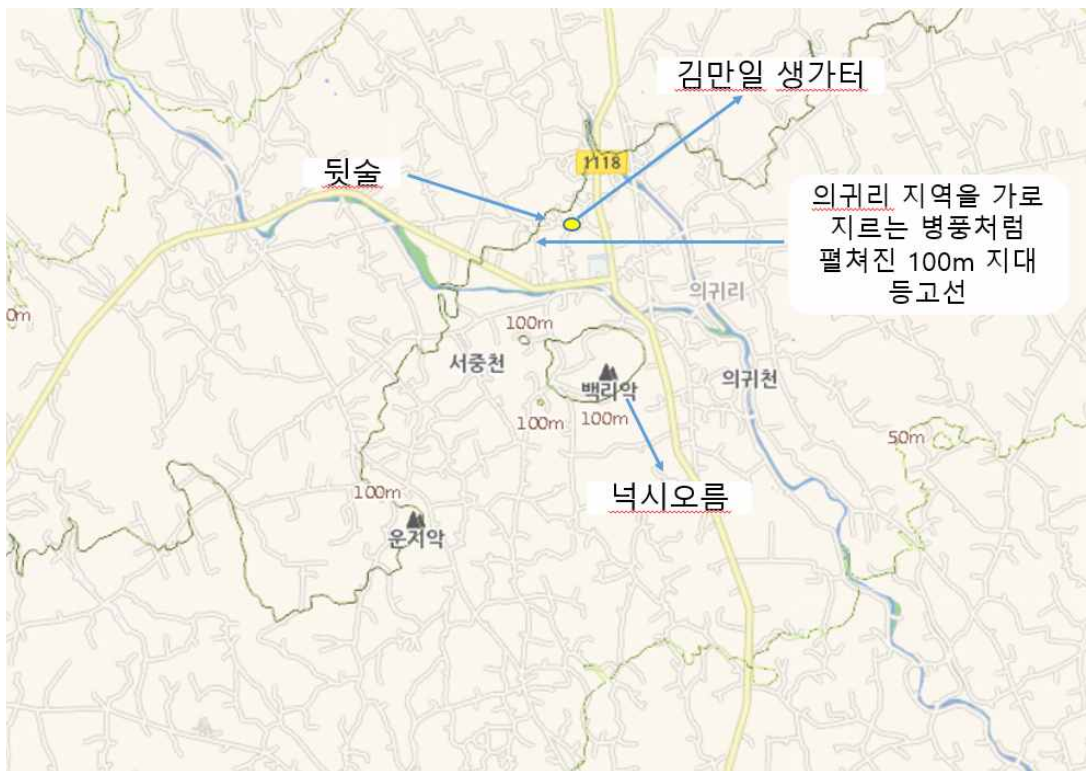
### [사료 3]

“정의현을 떠나 30리를 가는데 분입개, 천미포의 서쪽연대, 달산봉수, 당포, 소마로포 서쪽연대, 토산포, 토산봉수, 별포 서쪽연대를 지나 의귀원에 도착하여 점심을 하였다. 이곳 수령에게 뒤로 떨어지게 하고 관관이 수행하였다. 이곳은 바로 정의의 큰 마을로 김만일이 여기에 살았고, 지금은 그 자손들이 그 터와 그의 묘를 지키고 있다. 또한 마을 뒤에 ‘녹산’이 있는데 한라산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복 하면서 살을 벗어나 옆으로 큰 바다를 품고 용호의 정황이 있다. 산천이 황하게 트여 자손이 늘어나고 발복한다고 믿고 효험도 있다(食後離旌義縣行三十里過分入浦川尾浦西遷烟臺達山烽燧堂浦尢馬老浦西邊烟臺兎山浦兎山烽燧伐浦西煙臺到衣貴院中火主倅使之落後判官隨行此乃旌義之巨村金萬鎰居于此今其子孫守其墓又在村後麓山後漢拏南下起伏脫殺橫抱大海龍虎有情山川開朗子孫繁○發福信而有徵).”  
[이증 저, 김익수 역, 2001: 143~144].

13) 1680년 3월 20일 기록인 “의귀원에서 말을 쉬게 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관(官)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김복용 편역, 1994: 229).

[사료 3]의 내용을 통해서도 의귀 마을은 김만일이 살았던 ‘정의의 큰 마을’로서 의귀원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 뒤에는 녹산(麓山)이 있는데 한라산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살(殺)을 벗어나 옆으로 큰 바다를 품고 용호(龍虎)의 정황이 있어 산천이 황하게 트여 자손이 늘어나고 발복(發福)한다고 믿고 효험(效驗)도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주목된다. 여기서 ‘녹산’이 ‘녁시오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뒷술’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그림 13>의 의귀리 지역 등고선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의귀리 지역 뒤쪽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100m 지대는 마치 꿈틀대는 커다란 용(龍)이 여의주를 품으려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님로를 지나던 이증이 “한라산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복하여 살을 벗어나 옆으로 큰 바다를 품고 용호의 정황이 있어 산천이 황하게 트여”라고 표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의귀리지편찬위원회, 2016: 86, 『일간제주』, 2016년 12월 27일).



<그림 13> 의귀리 지역 등고선과 김만일 생가터 위치도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검색서비스([http://sd.ngii.go.kr:9000 /WebMap/webmap.jsp](http://sd.ngii.go.kr:9000/WebMap/webmap.jsp)) 지도를 캡처하여 연구자가 구성.



김만일 가계가 의귀 마을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연유는 다음의 ‘반득전 혈산(班得田 穴山)의 유전(遺傳)’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 14>는 제주의 6대 음택혈(陰宅穴)과 양택혈(陽宅穴)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음택혈은 사라혈(①), 의항혈(개여목, ②), 영실혈(③), 해두명(돛두명, ④), 반득전(⑤), 반화전(별진왓, ⑥) 등 6곳이며, 양택혈은 구아낭(①), 여호네(여온네, ②), 배염바리(③), 한다니(한교, ④), 의귀(⑤), 어도(봉성리, ⑥) 등 6곳을 말한다.

반득전은 음택혈 중에서 제5혈로서 ‘황사출림형(黃蛇出林形)’의 형국으로, 조화로운 주변의 공간 배치로 인해 안정된 국세가 형성된 이곳에 경주 김씨의 선묘(先墓)가 있다.<sup>14)</sup> 반득전은 전저고저(前低高低)의 지세에 배산임수(背山臨水)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을 가일층 안겨주는 곳으로, 제주에서 자랑하는 풍수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명당 중의 명당’이며, ‘내명당(內明堂)’이 넓고 풍성하여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신영대, 2009: 72~89).



<그림 14> 제주의 음택혈과 양택혈 위치도

출처: 카카오맵 캡처 후, 신영대(2009)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성.

14) 경주 김씨 선묘는 김만일의 증조부인 김자신을 말하며, <표 1>에 김자신에 관한 내용이 있다.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144, 『일간제주』, 2016년 12월 20일).

‘반득전 혈산의 유전’은 호종단(胡宗旦, 고종달 또는 고종달이)<sup>15)</sup>이라는 사람이 제주에 와서 지맥(地脈) 또는 혈맥(穴脈)을 끊으려 다니던 중에 우연히 김만일의 증조할아버지인 김자신<sup>16)</sup>(〈표 1〉 참조)의 뗏자리를 정해주는데, 바로 그곳이 ‘명당 중의 명당’이라서 훌륭한 후손이 태어나 부와 명성을 얻고 번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 이야기는 김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된다. 상(喪)을 당한 김보<sup>17)</sup>(〈표 1〉 참조)는 아버지의 뗏자리를 찾아 나섰는데, 이곳에서 우연히 호종단을 만나게 된다. 호종단은 풍수지리(風水地理)와 압맥술(壓脈術)에 신통하여 제주섬의 혈맥을 끊으려 다니다가, 어느 날 대혈(大穴) 중의 하나인 반득기왓[班得田]의 혈맥을 끊고자 혈의 맥 정통에 압침을 꽂아 놓았다. 이어 맥에 침을 꽂아놓은 뒤, 민오름으로 올라가 혈맥을 밟아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이때 김보는 지상에 철침(鐵針)이 꽂혀 있음을 발견하고는 괴이하게 여겨 이를 뽑아 던져버렸다. 그런데 호종단은 아무리 혈을 눌러도 맥이 죽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겨 압침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호종단은 가까운 곳에서 뗏자리를 찾고 있는 김보에게 압침을 보았는지를 물어보자, “산중에 꽂힌 철침이 이상하여 뽑아보았으나, 별 신통한 것이 아니기에 던져버렸다.”고 하였다. 호종단은 처음에는 낭패감을 느꼈지만, 김보의 기상(氣象)을 보니 놀라웠다. “공은 천복(天福)을 타고 난지라 내 어찌 막겠는가? 사실, 나는 호종단이라는 사람인데 제주에 오자마자 산수정기가 중국인이 나를 배척하고 해치려 하기에 혈맥을 끊고 있던 참이었소. 그런데 공이 우연히 이곳까지 와서 철침을 뽑아버린 것은 내가 그대를 도와 혈지(穴地)를 얻도록 하는 계시인 듯 하오. 이 혈에 장사(葬事)하면 당대 운이 트여서 복이 닥치고, 후손들이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리게 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15) 송나라 복주인(福州人)으로 태학(太學)에 입학하여 상사생(上舍生)이 되고, 뒤에 저장성[浙江省]에 있다가 상선(商船)을 타고 고려에 들어와 귀화하여 예종의 후대를 받았다. 1111년(예종 6) 좌우위 녹사 권지직한림원(左右衛錄事權知直翰林院)·우습유 지제고(右拾遺知制誥)에 발탁되고, 1113년 좌정언을 거쳐, 1117년 기거랑(起居郎)으로 『서경』의 무일편(無逸篇)을 강독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년 2월 4일).

16) 김자신은 용양위부사직, 천호건공장군을 지냈고, 1620년(광해군 12)에 통정대부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144).

17) 김보(?~1562)는 김만일의 할아버지이다. 충의교의, 충무위부사직, 어모장군을 지냈고, 1620년(광해군 12)에 가선대부 형조참의에 추증되었다(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144).

호종단이 “이곳을 힘껏 밟으시오.”라고 말하자, 김보는 그가 시키는 대로 땅을 힘주어 밟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호종단이 지표(地表)를 재며 분맥(分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윽고 김보의 발바닥은 점점 뜨거워지고 진동이 강해지자 무의식 중에 발을 떼어버렸다. 그랬더니 땅속에서 비둘기 한 쌍이 솟아 나와 남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호종단은 밟았던 자리에 아버지를 안장(安葬)하고 비둘기가 날아가 앉은 곳을 찾아 집을 지어 살면 국운(國運)이 다할 때까지 가운(家運)을 지탱하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그리하여 김보는 이곳에 아버지를 안장하여 ‘반득전 혈산’이 되었고, 김보의 아들 김이홍<sup>18)</sup>(〈표 1〉 참조)은 비둘기가 날아간 곳을 찾아 집을 지어 사니, 의귀 마을에 종가(宗家) 택지(宅地)를 정한 연유가 되었다.

경주 김씨 족보와 이 설화를 연결하여 보면, 그때 명혈에 안치된 사람은 경주 김씨 입도조 김검룡의 4세손인 김자신이고, 후에 수망리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 집을 짓고 살면서 의귀 마을에 정착한 사람은 김검룡의 6세손인 김이홍이다. 이는 위 족보에 이홍 할아버지가 ‘수망리 남편 3리허에 설동하여 이주하시다’라고 적혀 있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5, 364~367).

‘호종단 전설’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는 역사와 전설을 혼동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전설이 뒤늦게 제주에 전해지면서 실제 호종단이 살았던 시기와 김만일의 증조부가 사망한 시기가 300년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설의 내용이 보태지거나 창작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종단이 소위 압승술(壓勝術)을 부렸다는 것은 실제 역사에서든 전설 속에서도 일치하며, 김만일과 관련된 ‘호종단 전설’의 가장 큰 특징은 호종단의 초자연적인 초능력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만일 집안을 크게 일으키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점일 것이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05: 41~42).

사실, 유전(遺傳)은 설화(說話)의 한 갈래로 전설(傳說)이라 할 수 있다. 전설은 특정 시공간(視空間)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믿어지면서 증거물과 함께 널리 구전(口傳)으로 전해오는 것이다. 전승자(傳承者)가 진실이라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

18) 김이홍은 어모장군, 용양위부사과를 지냈고, 1620년(광해군 12)에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추증되었다(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5).

고 주장하는 이야기이다(『일간제주』, 2017년 1월 10일).

반득전(班得田)은 후술(後術)할 산마장의 터전(<그림 16, 그림 17>)으로, 수많은 전마를 산출하여 나라의 군마 공급을 도맡아 감당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일간제주』, 2017년 1월 17일).

김만일의 성장 과정과 관련하여,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齊州風土記)」와 송정규(宋廷奎)의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에 김만일의 젊은 시절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어, 그의 젊은 시절 신분과 말을 키우게 된 계기에 관한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 [사료 4]

“김만일은 본도의 정병이었는데, 그는 젊었을 때 자마 두 필을 얻어서 정의현의 지경에 방목하였는데, 그 말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암말들은 모두 두 살이 되면 능히 새끼를 칠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 평범한 말이 아니라 준마였으므로 수년이 지나는 동안 많이 번식하여 수백 필이 되었고, 점차 지금 상태에 이르렀다(所謂萬鎰者 本島正兵也 少時得雌馬二匹 牧之於旌義之境 其馬所產多 是雌馬皆至二禾而能生雛 赤皆駿異 數年來多蕃息).”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201].

[사료 4]의 내용을 통해 김만일은 젊은 시절 제주의 ‘정병(正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정병에 속하는 신분층은 양인 농민 가운데 상층부에 위치하였고, 정병은 마병(馬兵)인 기정병(騎正兵)과 보병(步兵)인 보정병(步正兵)으로 나뉘는데, 김만일은 말을 잘 키우고 말을 잘 다루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정병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5: 130).

『경국대전』에 따르면 충순위(忠順衛)에 속할 수 없는 하위관리 출신자와 양인 중의 상층부가 정병에 소속되게 되어 있었다. 정병은 임기가 차서 해당 관직을 떠나면 종5품의 영직(影職)을 받게 되었으며, 사만(仕滿: 임기 만료) 64일이야 가계(加階)되었다. 잉사(仍仕: 사만 된 뒤에도 계속 근무)를 원하면 사만 35일에 가계되는데, 정3품까지 오르면 그치게 되어 있었다.<sup>19)</sup>

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년 2월 4일.



<그림 15> 방답진과 임자도 위치도

출처: 네이버지도 캡처 후 연구자가 구성.

또한, 김만일이 33세를 전후한 시기에 첨절제사(僉節制使)<sup>20</sup>를 역임했던 기록이 있다. 김만일은 “일찍 무과에 올랐고 타고난 성품이 출중 명석하고 도량이 넓었다. 1582년(선조 15)에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답진(防踏鎭: 順天府)<sup>21</sup> 첨절제사가 되어 벼슬을 지내고, 고향에 돌아온 뒤에는 생업창달(生業暢達)과 선대(先代)의 유업(遺業)인 말의 개량과 번식에 전념하였다”는 내용이다(강용삼, 1980: 114, 정수현, 2008: 286, 서귀포문화원, 2009: 166, 장덕자·최미경, 2020: 56).

김만일의 관직 수행은 손자인 김반(金蕃, 1629~1698)<sup>22</sup>으로 이어졌다. 김반은 1652년 순치임진방 임진 증광시 무과 을과 1위로 급제하여, 1665년 임치진수군첨절제사(臨淄鎭水軍僉節制使)로 부임하여 조부(祖父)에 이어 첨절제사를 역임한 바 있다(<그림 15>).

20) 조선시대 서반 종3품 무관 직명. 각 지방 제진(諸鎭)을 지휘하는 거진(巨鎭)의 최고 지휘관. 병마(兵馬, 육군)와 수군(水軍)의 구분이 있다. ‘첨사(僉使)’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culturecontent.com/dictionary>, 검색일: 2021년 2월 4일).

21) 방답진(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은 조선 시대 왜구 방어에 최일선 수군진이며, 전라좌수영에 소속된 수군기지 중 하나로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5관 5포 중 5포에 해당한다. 참고로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인 이순신이 1591년 바로 이곳 방답진 첨사로 부임한 바 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검색일: 2021년 2월 4일).

22) 김반(1629~1698)은 김대길의 장남으로 1672년에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었고, 1675년에 첨지중추부사겸나주진관(僉知中樞府事兼羅州鎭管)을 거쳐 1676년에 행흥덕현감(行興德縣監)을 역임하였다(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12).



그 무렵 마필(馬匹)의 용역(用役)은 전마(戰馬), 체신(遞信)뿐만 아니라 승마(乘馬) 등으로 국가적인 비중이 컸으므로 김만일은 특히 육마(育馬)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강용삼, 1980: 115,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368).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말 사육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김만일이 말 사육을 위해 어떤 노력과 정성으로 준마를 생산해냈는지는 다음의 [사료 5]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료 5]

“그는 젊어서 매우 가난했다. 말 한 마리를 마련해 다른 무리에 부쳐 키우는 처지였는데, 풀과 굴레만 집안 가득 마련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그러나 그가 키우는 말이 점점 늘어나 수십 년 지나자 한라산 동쪽 백여 리 땅에 말무리가 가득 차서 말의 숫자를 팔짜기 수로 헤아릴 정도였다. 그래도 더욱 부지런히 일하기를 그치지 않아 좋은 말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격을 따지지 않고 종마로 사들였다. 해마다 좋은 말을 찾아다니며 사들이니 이 때문에 좋은 말이 많이 생산되었다. 세상에서는 좋은 말을 두고 ‘김씨가 산에 들인 말’이라 일컬었다.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세 고을의 세공과 임금이 타는 말이 모두 이곳에서 많이 나왔으니, 전후로 조정에 바친 말이 천여 필이었다(少時貧甚 得一牧馬 寄牧他群 而先作草勒 充滿一室 人皆笑之 馬漸蕃息 積數十年 漢拏東面百餘里之地 馬群彌滿 以谷量之 猶孳孳焉 不解益勤 聞人有善馬 則不計其直而買 作種馬 搜訪采入 歲以爲常 以此多產駿良 世稱金家入山馬 三邑歲貢御乘 多出於此 前後獻馬 千餘匹).” [송정규 지음, 김용태·김세미오 옮김, 2015: 104, 221].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만일은 33세 이전에 제주에서 정병의 역을 마친 후 첨절제사로 방담진에 부임하였고, 1585년 36세 전후에 고향 제주도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만일이 제주로 돌아온 후 7년 정도 지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나라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전마 확보는 절실했으며, 김만일의 나라에의 헌마는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음의 <표 2>는 김만일이 젊은 시절 말을 키우게 된 계기 및 1만여 필의 말을 키웠고, 나라에 수천 필의 말을 헌마함으로써 벼슬이 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이르렀다는 내용 등 김만일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문헌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 2> 김만일의 행적 기록 문헌

문헌 명	저자	내용	저술시기 (년)
「국조보감」 권35	신숙주	김만일이 기르는 말이 1만 필이나 되니 군용으로 쓸 말 1천 필을 취용하라고 임금에게 아뢰는 내용	1627
「응천일록」 권2	박정현	김만일이 말 500필을 바쳐, 광해군이 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도총관(지사총관)에 임명	1620
「제주풍토기」	이건	김만일이 우연히 말 한 필을 얻어 많은 말을 번식시켰다는 내용, 종마 보존법, 제주의 정병, 말을 바친 공으로 관직이 부총관에 이름	1628~1635
「해외문견록」 김만일 목마조	송정규	김만일은 한 두 필의 말로 목마 시작, 말을 키우기 위해 쏟은 정성과 노력 묘사, 제주의 정병, 지중추부사에 다다른, 산마감목관에 관한 기록	1704~1706
「정헌 영해처감록」	조정철	김만일이 우연히 말 한 필을 얻게 되는 과정과 천 필의 말로 불어난 경위 서술	1824
「탐라지초본」 권3, 제주, 기문	이원조	수말 한 필 얻어 3~4년 사이 1000필 증식	1841
「탐라록」 권3	이원조	김만일이 암말 한 필을 산속 숲에서 얻어 점점 번식 시켜 천 필을 바치니 자손이 감목관을 세습했다고 기록	1841~1843
「입하필기」 권20 문헌지장편	이유원	김만일이 기르는 말이 1만 필이나 되니 군용으로 쓸 말 1천 필을 취용하라고 임금에게 아뢰는 내용	1871
「파한록」	김석익	김만일이 말을 키우게 된 계기, 말 500필을 나라에 바친 일, 후손이 감목관을 세습한 일 등을 기록	1921

자료: 김만일의 행적 기록 문헌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하여 구성.

### Ⅲ. 김만일의 현마 업적

#### 1. 김만일의 사마목장 개척

조선 시대의 마목장(馬牧場)은 이성계가 제주에서 산출된 응상백(凝霜白: 태조가 탄 8준마 중 하나)을 타고 압록강에서 회군하여 조선 왕조를 개창하면서 새로이 발족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사)제주마연구소, 2014: 17). 조선 전기에는 고려 말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제주마가 국내외에서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하였고, 특히 명나라에 군마를 공급해야 하는 관계로 국영목장(國營牧場)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사마목장(私馬牧場)도 설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체는 마목장화(馬牧場化)되었고, 제주도의 행정은 마정(馬政)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또한 행정 구획도 목장 분포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남도영, 2003: 186).

그러던 중 조선 전기의 마정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무너지고 마필 수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즉 선조 때의 마정은 초기의 혼란과 임진왜란 중의 전마 공급, 임진왜란 후의 민폐와 개혁안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였고, 광해군 집권 15년간 제주의 마정은 수탈과 혼란 속에 국영목장은 붕괴되고 사마목장이 발달하였다. 이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광해군과는 달리 친명배금정책(親明排金政策)을 취하여, 후금(後金)으로부터 두 차례나 침략을 받는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 마정은 전마 확보를 급선무로 하였으나, 전쟁 등으로 무너져버린 목장은 복구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었다(남도영, 2003: 235, 242, 244).

이러한 와중에도 김만일 사마목장은 한라산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번성하였고, 효종 대에 이르러서는 김만일 사마목장과 기존 국영목장의 땅 일부를 합쳐 소위 ‘민·관 합동목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산마장(山馬場)이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김만일은 언제부터 어떠한 연유로 말을 키우기 시작했으며, 어디에 사마목장을 설치하고 개척했을까? 그리고 사마목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김만일의 6대조인 김검룡의 행적을 앞서 언급하였다. 김검룡 역시



나라에 말을 올려보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선 개국 일등공신 김인찬의 셋째 아들로써 제주에 내려온 경주 김씨 입도조인 김검룡은 1402년(태종 2)에 좌도지관(左都知管) 고봉례(高鳳禮)와 우도지관(右都知管) 문충세(文忠世)와 협조하여 진상마(進上馬)를 헌납하여 경기도 양평군 마유봉에서 사육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144).

이와 관련하여 마유산의 어원은 ‘조선 시대 군마를 방목했다’라는 추정과 ‘김검룡이 양마 6필을 경기도 양근의 마유봉으로 보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 신문 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sup>23)</sup> 이를 통해 김만일의 가계는 선대(先代)부터 대대로 말을 키웠었다는 사실과 나라에 말을 헌마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만일이 33세를 전후한 시기인 1582년에 방답진 첨절제사를 역임한 후 제주로 돌아온 후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마축의 개량과 번식에 오로지 한마음을 쏟았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강용삼, 1980: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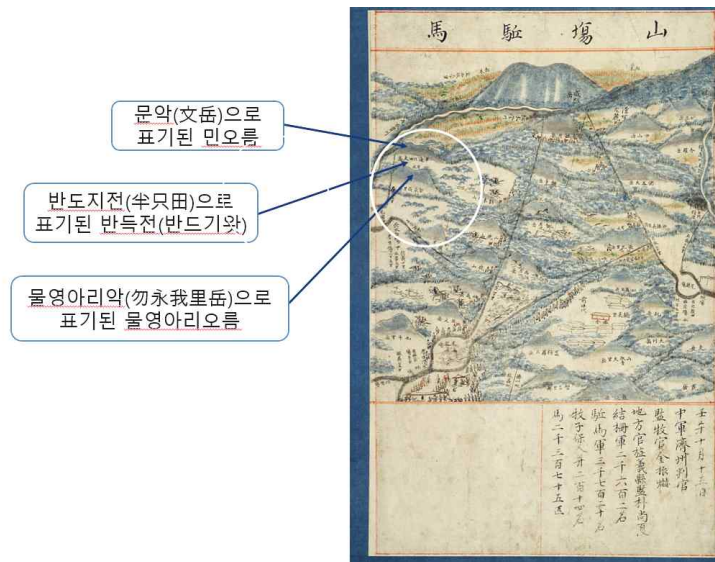
김만일의 사마목장 설치와 관련하여 [사료 4]에서 보았듯이 이건은 「제주풍토기」에서 ‘정의현의 지경[旌義之境]’에서 말을 방목했다고 기록했다. 이곳은 <그림 17>에서 보듯이 예전의 의귀리 산간지역으로 목초지가 넓게 펼쳐진 9소장이 위치했던 곳으로 보인다.

이곳은 현재 반득전, 민오름, 물영아리 일대로서, <그림 16>과 <그림 17>의 ○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이형상(李衡祥)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산장구마(山場駟馬)」에 반도지전 문악, 유수, 물영아리악으로 표기된 지역을 말한다(半道只田文岳 有水 勿永我里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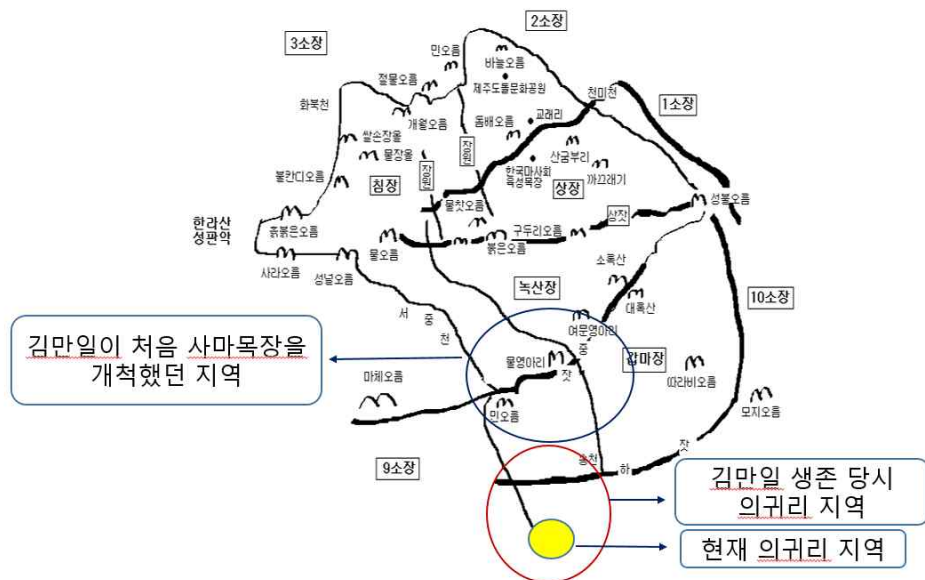
즉 김만일은 처음에 <그림 16>과 <그림 17>에 ○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말을 사육하면서 점차 말이 번성하였고, 그의 사마목장은 “한라산 주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후 김만일의 셋째 아들 김대길과 김만일의 손자 김여(金礪)가 1659년(효종 10)에 전마 208필을 바치자, 국왕은 제주목사 이괴(李檜)의 주청(奏請)을 받아들여 동·서별목장을 산마장으로 만들어 목양케 하였다. 그리고 ‘제주산마감독관(齊州山馬監牧官)’제를 신설하여 김만일 가(家)의 마필을 바친 공로를 인정하여 김대길(金大吉)을 초대 산마감독관에 임명하였

23) “조선 1401년(태종 1)에 제주감목사 김검룡이 양마 6필을 경기도 양근의 마유봉으로 보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경인일보, 2013년 9월 13일).

고, 그 후 230여 년간 김만일의 후손들이 산마감목관직을 세습하며 산마장(山馬場)을 운영하였고, 나라에서 필요한 전마를 공급하며 이를 감당하였다(『정조실록』 권13, 1782년(정조 6) 1월 14일, 김경옥, 2000: 8, 남도영, 2003: 308).



<그림 16> 『탐라순력도』 「산장구마」 (보물 제652-6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장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7> 산마장의 영역  
출처: 장덕지(2007) 그림을 연구자가 재구성.

그렇다면 김만일 사마목장의 규모와 기르는 말의 수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6]

- ① “제주의 품관 김만일은 말 기르는 사업이 매우 번창하여 수천여 마리뿐이 아니어서 국둔의 3, 4배 이상이다(竊念濟州品官金萬鎰畜馬甚繁, 不止數千餘頭, 比諸國屯不啻三四倍).”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0, 1612년(광해군 4), 2월 8일].
- ② “제주의 김만일이 개인적으로 말을 기르고 있는데 무려 1만여 필이나 된다고 한다(濟州 金萬鎰私養馬, 多至萬餘匹云).”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29, 1618년(광해 10) 6월 20일].
- ③ “제주 김만일의 사둔마를 모조리 거두어들여 점검하면 1천 1백여 필인데(則濟州 金萬鎰私屯馬, 盡爲搜括, 點出一千一百餘匹).” [『광해군일기(중초본)』 133권, 1618(광해 10) 10월 13일].
- ④ “김만일은 제주의 부유한 백성이다. 말을 길러 <천> 만 필이나 되었으며, <나라 안의 좋은 말은 모두 그가 기른 것이었다>(金萬鎰, 濟州富民也. (以)畜馬(致產千)萬匹, <而國中良馬, 皆其所畜>).”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55, 1620(광해 12) 8월 15일].
- ⑤ “그러나 김만일의 말이 무려 1만 필이나 되는데, 이 말들이 국내에서 자라 땅에서 나는 풀을 먹으며 한라산 주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목축이 만 마리에 이른 것은 모두가 국가의 은혜인 것입니다(萬鎰之馬, 多至萬匹, 居國之地, 食土之毛, 環漢挈一山, 殆將半焉, 則牧畜之滿萬, 無非國家之賜也).” [『인조실록』 권16, 1627년(인조 5) 7월 2일].

[사료 6]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김만일의 사마목장은 1만 필에 가까운 말을 목양하여 국가의 필요시에 전마를 공급하였고, 마종을 개량하여 양마를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뒷날 산마장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남도영, 2003: 305~306).

다만 여기에서 광해군 이후에 김만일이 길렀다는 말 1만 필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만일의 사마목장을 계승한 산마장의 총 마필 수가 정조~철종 연간에 2천 필 미만이었다는 사실과, 전체 국·사마목장 마필이 평균 1만 필에 불과했고, 많을 때도 고려 말엽 2~3만 필이었으며, 『목장지도(牧場地圖)』의 경우에는 12,821필

정도였기에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당시 김만일의 소유한 마필 수는 대체로 3~5천 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남도영, 1996: 395, 2003: 306).

## 2. 김만일의 헌마 과정과 헌마 업적

### 1) 제주마의 중요성과 김만일과의 연관성

제주의 역사는 ‘마정(馬政)의 역사(歷史)’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의 역사는 제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영역(核心領域)이다(『일간제주』, 2017년 1월 31일).

한국 최남단 바다 가운데 위치한 제주도는 자연적 조건이 말 기르기에 적합하여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제주마는 가마화(家馬化)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사, 교통, 산업, 외교용으로 크게 이용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제주도의 목장은 고려 말에 원(元)이 몽고마를 전래하여 섬 전체를 목장화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생산된 말은 원·명(元·明)에까지 수출되어 그 이름이 알려졌다(남도영, 2003: 33).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형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식물이 풍성하게 자생하고 있어서 목축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제주마는 조선시대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종 때 병조에서 “제주는 본래 좋은 말을 생산하는 땅이어서 다른 목장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였고, 예종 때 행통예원인의(行通禮院引義) 고택(高澤)은 “말의 용도는 나라의 정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제주는 예로부터 방성(房星)<sup>24)</sup>별이 비치는 곳이며 또 사나운 짐승이 없기에 사실 말 기르기 좋은 곳이다”라고 하였으며, 성종 때 시독관(侍讀官) 유희인(兪好仁)은 “우리나라 제도(諸道)에 양마가 많은데 그중에서 제주도의 말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24) 28수(宿)의 하나로 마신(馬神)을 맡았다(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 ‘행통례원인의(行通禮院引義) 고택(高澤)이 제주의 폐단을 아뢴 상소문’ 주 166, 검색일: 2021년 4월 10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2013: 13).

이처럼 조선 시대 제주목장은 우리나라 목장을 대표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에 목장을 신설하거나, 목장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제주 사례에 따라 해결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제주마는 그 수요가 증대하여 국·사영 목장이 설치됨과 동시에 한국의 마정사상 특기할만한 김만일의 사마목장과 관민 합동의 산마장이 설치되어 제주도는 한국 최대의 말 공급지로써 기능을 다하였다(남도영, 2003: 33).

제주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제주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선왕조실록』 기사

구분	내용	원문	날짜
『세종실록』 권89	제주는 본래 좋은 말을 산출하는 땅이어서 다른 목장과 비교가 아니 됩니다.	濟州, 本產良馬之地, 非他牧場之比也	1440년(세종 22) 5월 6일
『예종실록』 권3	말의 쓰임은 군국에 관계되는 바가 심히 큼니다. 제주는 고기에 이르기를 ‘방성이 임한 곳이다’라고 하였고, 또 못된 짐승이 없어서, 실로 말을 기를 만한 곳입니다.	馬之爲用, 軍國所係甚大.濟州古稱房星所臨, 又無惡獸,實育馬之地.	1469년(예종 1) 2월 29일
『성종실록』 권275	우리나라 제도의 목장에 양마가 많으며 제주도의 말이 가장 훌륭하여 양마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我國諸道牧場多良馬, 而濟州尤最	1493년(성종 24) 3월 16일

자료: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검색한 후 연구자가 내용 구성.

더 나아가 영조는 제주도를 가리켜 ‘국마(國馬)의 부고(府庫)’라고 일컬었으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25, 병17, 마정), 이형상은 ‘섬(제주도)의 일은 마정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하였고(『병와전서(瓶窩全書)』 권10, 탐라계록초), 오명항(吳命恒)은 ‘우리나라 말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728년 5월 15일), 이인엽(李寅燁)은 ‘말을 기르는 것은 나라의 대정인데, 제주는 바로 우리나라의 기북(冀北)이어서 국초에는 이 말을 중국에 조공하기도 했으며 어승마(御乘馬)로 삼았다(『비변사등록(備

邊司謄錄)』 권57, 1706년 9월 6일)’라고 밝히면서, 제주마의 내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문헌에서 제주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마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김만일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제주마와 관련한 그의 행적이 너무나 크고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여 분석해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표 4> 『조선왕조실록』 중 김만일 관련 용어 검색 비율표

검색어	원문(건)	국역(건)	비율(%)		비율(%)	
			원문	국역	원문	국역
濟州	2,498	1,889			100	100
牧場	791	541			31.67	28.64
목장	1,137	1,260			45.52	66.70
濟州 馬	645	373	100	100	25.82	19.75
제주 마	1,126	638	100	100	45.08	33.77
金萬鎰	25	24	3.88	6.43	1.00	1.27
김만일	27	26	2.40	4.08	1.08	1.38
監牧官	150	142	23.26	38.07	6.00	7.52
감목관	153	162	13.59	25.39	6.12	8.58
濟州 監牧官	30	24	4.65	6.43	1.20	1.27
제주 감목관	32	34	2.84	5.33	1.28	1.80

자료: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검색한 후 연구자가 내용 구성.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濟州 馬’로 검색하면 원문에서 모두 645건이 검색된다. 이를 100으로 놓았을 경우, ‘金萬鎰’은 25회 등장하므로 이는 3.88%에 해당하는 수치다. ‘濟州 馬’는 『조선왕조실록』의 건 구간에 대한 검색인 데 비해, ‘金萬鎰’에 관한 검색은 그의 생애(83년)와 그의 사후에 언급된 2회(『숙종실록』, 『정조실록』)를 포함한 한정된 기간의 검색 수치이며, 김만일 관련 기사 중에서 ‘김만일’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수치란 점에서 적지 않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25)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검색일: 2021년 4월 15일.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濟州’로 검색했을 경우에는 원문에 모두 2,498건이 검색되는데, 이를 100으로 놓았을 경우에 ‘金萬鎰’의 비율은 1%에 해당한다. 한 인물이 ‘濟州’란 지역에서 검색 횟수 비율이 1%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실로 그 비중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齊州 馬’와 ‘金萬鎰’ 이외의 검색어인 목장, 監牧官 등 다른 용어의 검색 건수와 그 비율에 관해서는 <표 4>의 내용과 같다.

## 2) 조선의 정세와 헌마의 배경

봉당의 대립으로 양반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16세기 무렵에 동아시아의 정세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우선 중국에서는 여진족의 통합 기운이 거세게 일고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100여 년간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통일국가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외족의 조선에 대한 침략 조짐은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직도 자기에게 반대하는 영주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막대한 해외무역의 이익을 얻고자 21만의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략하였다(1592년 4월 13일).

외족의 조선 침략 당시 부산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과 동래부사(東來府使) 송상현(宋象賢)이 부산(1592년 4월 14일 함락)과 동래(1592년 4월 15일 함락)에 상륙하는 왜군을 맞아 사투를 벌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시 중앙에서 출정한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砮)이 충주에서 배수진을 치고 항전하였으나, 역시 패배하였다(1592년 4월 28일). 그리하여 왜군은 조선의 어떠한 저항을 받음이 없이 서울을 향하여 파죽지세로 북상하였다.

전쟁 발발에 대한 아무런 사전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조선으로서는 조총으로 잘 훈련되고 무장한 왜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조선의 조정은 전의를 상실하고 대책 없이 의주로 피난하였으며,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20일도 채 안 되어 서울에 입성(1592년 5월 2일)하였고, 계속해서 평양을 거쳐 함경도로 북상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인 임진왜란 때, 말[戰馬]과 관련하여 조정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제주 사람 김만일이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김만일을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그 당시 말의 용도는 물론, 말의 전쟁 수행을 위한 중요성과 관련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말은 일상생활에서 긴요하게 쓰였으며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전쟁 수행을 위한 전마로서 기능하며 나라의 국방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존재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말은 마정의 핵심이며, 국방상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즉 “말을 길러내는 일은 군사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반복하여 언급되고 있다[『태종실록』 권13, 1407년(태종 7) 3년 29일, 『세종실록』 권 52, 1431년(세종 13) 6월 20일, 『세종실록』 권89, 1440년(세종 22) 5월 6일, 『세종실록』 권89, 1440년(세종 22) 5월 6일].

또한, 말에 관한 일이 나라의 정사(政事)에 있어 얼마나 중요했으며, 말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인 [사료 7]의 내용을 통하여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 [사료 7]

① “사복시<sup>26)</sup> 겸 판사 김남수가 말을 기르는 데 대하여 제의하기를 ‘말을 기르는 것은 군사와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정사로 됩니다. 각 도 여러 섬은 수초가 무성하지 못하므로 말이 새끼를 낳는 수가 적어서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생각건대, 전라도 해변이 제주의 풍토와 비슷하고 또 바다를 연한 곳에 넓고 있는 넓은 땅이 많으니, 빌건대, 제주의 말 가운데에서 가려내어 4, 5월 때를 당하여 들어와 방목하여 번식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부에 내리었다.(司僕寺兼判事金南秀, 啓馬政 啓曰: “馬政, 軍國所重, 各道諸島馬, 因水草不敷, 孳産數少, 名存而已 窃謂全羅海邊, 与濟州風土相似, 且多連海閑曠之地 乞於濟州馬中簡出, 當四五月時, 入放孳息何如?’ 下政府.)” [『태종실록』 권23, 1412년(태종 12) 2월 6일].

26) 태봉의 비룡성 제도를 계승하여 태복시라 하던 것을, 1308년(충렬왕 34)에 사복시(司僕寺)로 고쳤으며, 다시 태복시(1356), 사복시(1362), 태복시(1369)로 번갈아 개칭되다가, 1372년(공민왕 21) 사복시로 다시 고쳐 조선에 계승되었다. 1405년(태종 5) 병조의 속아문이 되고, 『경국대전』에는 정3품 아문의 관청으로 정비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1년 4월 15일).



② “비록 군대의 양식이 넉넉하다 한들 걸어 다니는 군사를 가지고서야 무슨 일을 해내겠는가(雖糧餉有餘, 徒步何能有爲?).” [『태종실록』 권29, 1415년(태종 15) 1월 21일].

③ “말에 관한 일은 나라의 정사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애써 길러서 번식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馬政軍國重事, 須盡心牧養, 以致蕃息).” [『세종실록』 권30, 1425년(세종 7) 10월 26일].

④ “식량을 넉넉히 마련해두며 군사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군사와 정사의 중요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면 어디서 군사가 강해지며 백성들의 식량이 넉넉하지만, 군마가 모자라면 무엇으로 싸움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足食足兵, 軍國急務 若民食不足, 則兵力何自而強哉? 雖民食有餘, 而戰馬不敷, 則攻取何(田) [由] 而得哉?).” [『세종실록』 권90, 1440년(세종 22) 8월 4일].

⑤ 윤필상은 15세기 목장 혁파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예기』에 ‘나라의 부를 물으면 말의 수효로 대답한다’고 하였으며, 정통황제의 조칙에 ‘군국의 사무는 말보다 큰 것이 없으니, 말의 생산이 왕국의 부가 된다’(《記》曰: ‘問國之富, 數馬以對’ 正統皇帝降勅曰: ‘軍國之務, 莫先於馬 馬之產, 王國爲富’ ).” [『연산군일기』 권44, 1502년(연산군 8) 6월 19일].

⑥ “옛날에 나라의 부를 물으면 말의 숫자로써 대답했듯이, 마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중대합니다(臣等竊伏思之, 古者問國之富, 數馬以對, 馬政最關於有國, 而我國爲尤重).”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54, 1612년(광해군 4) 6월 19일].

특히 [사료 7] ①에서 사복시(司僕寺) 겸 판사(判事) 김남수(金南秀)가 말의 방목과 번식에 관해 임금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는 내용을 통해, 그 당시 제주도 다른 지역보다 말 사육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조정에서는 제주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까지 번식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선왕조실록』 기사

구분	내용	원문	날짜
『태종실록』 권13	마정은 군국의 중한 일	馬政, 軍國所重	1407년(태종 7) 3월 29일
『태종실록』 권23	마정은 군국의 중한 일	馬政, 軍國所重	1412년(태종 12) 2월 6일
『태종실록』 권29	비록 군대의 양식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보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雖糧餉有餘, 徒步何能有爲?	1415년(태종 15) 1월 21일
『세종실록』 권30	마정은 군사에 중한 일이니 모름지기 마음을 다하여 길러서 번식하게 해야 할 것	馬政軍國重事, 須盡心牧養, 以致蕃息	1425년(세종 7) 10월 26일
『세종실록』 권52	마정은 군국의 중한 일이므로, 각도의 감목관을 역승으로 제수하여 겸임토록 함	馬政, 軍國重事, 故各道監牧官, 除兼任驛丞	1431년(세종 13) 6월 20일
『세종실록』 권64	마정은 군국의 중요한 사무	馬政, 軍國重務	1434년(세종 16) 4월 26일
『세종실록』 73권	변방 군비의 가장 소중한 것이 전마와 군량이운데, 전마로 성장하기까지는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邊備之所重, 在於戰馬與糧餉而已, 馬之壯長, 非一二年之所養也	1436년(세종 18) 윤6월 19일
『세종실록』 권89	- 제주는 본래 좋은 말을 산출하는 땅이어서 다른 목장과 비교가 아니 됩니다. - 마정은 군국의 중한 일	濟州, 本產良馬之地, 非他牧場之比也 馬政, 軍國所重	1440년(세종 22) 5월 6일
『세종실록』 권90	식량이 충족하고 군사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군국의 급무입니다. 만약 백성의 식량이 부족하면 병력은 무엇으로 강해지며, 비록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여도 전마가 모자라면 공격력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足食足兵, 軍國急務 若民食不足, 則兵力何自而強哉? 雖民食有餘, 而戰馬不敷, 則攻取何(田) [由] 而得哉?	1440년(세종 22) 8월 4일
『단종실록』 권6	마정도 또한 군국의 중요한 일	馬政亦軍國所重	1453년(단종 1) 5월 1일
『성종실록』 권38	마정은 국가의 중요한 일	且馬政國家所重,	1474년(성종 5) 1월 27일
『성종실록』 권74	마정은 중요한 일	馬政重事	1476년(성종 7) 7월 12일
『성종실록』 권94	마정은 대단히 중요한 일	馬政至重	1478년(성종 9) 7월 18일
『성종실록』 권226	예전에 나라의 부를 물으면 말의 수를 세어서 대답한다고 하였으니, 마정은 진실로 국가의 중한 일	古者, 問國之富, 數馬以對, 馬政實國家重事	1489년(성종 20) 3월 22일
『성종실록』 권291	마정도 매우 중하기 때문에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의 부강함을 물으면 말을 헤아려서 대답한다.'라고 함	然馬政甚重 古云: '問國之富, 數馬以對'	1494년(성종 25) 6월 24일
『중종실록』 권76	백성의 식량이 국가의 큰일이기는 하지만 마정도 군정의 급선무	民食雖國家大事, 馬政亦軍政所急	1533년(중종 28) 9월 2일

『중종실록』 권80	마정은 중요한 일이다. 요즘 나라가 태평하기 때문에 이래도 되지만 만일 사태가 급박할 경우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사가 있더라도 말이 없다면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는가	馬政, 大事也, 近來國家昇平, 故如是矣 若事窘迫, 則雖有勇軍, 苟爲無馬, 則何能爲哉?	1535년(중종 30) 8월 14일
『중종실록』 권94	마정은 국가의 중요한 일	馬政有國之重事	1541년(중종 36) 1월 17일
『명종실록』 권9	국가의 정책 중 마정이 가장 중요	國家之最重, 莫馬政若也	1549년(명종 4) 10월 25일
『명종실록』 권30	마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	馬政甚重	1564년(명종 19) 5월 25일
『선조실록』 권65	대저 마정이 잘 수행되느냐의 여부에 한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으므로 사마의 이름이 주나라의 관직에 있고 국군의 부를 물으면 말의 수로 대답하였으니, 이는 육지에서의 용도로는 말만큼 국가의 큰일에 관련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	夫馬政之修否, 關一國之興替, 故司馬之名, 著於《周官》而國君之富, 數馬以對, 蓋其地用, 莫如馬, 以繫國家之大務也	1595년(선조 28) 7월 2일
『선조실록』 권65	마정은 매우 중하므로 병부에서 주관	馬政爲重, 兵部主之	1595년(선조 28) 7월 18일
『선조실록』 권187	우리나라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정	我國之事, 莫重者馬政	1605년(선조 38) 5월 15일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54	옛날에 나라의 부를 물으면 말의 숫자로써 대답했듯이 마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중대	臣等竊伏思之, 古者問國之富, 數馬以對, 馬政最關於有國, 而我國爲尤重	1612년 (광해군 4) 6월 19일

자료: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한 후 연구자가 내용 구성.

그런데 문제는 조선 전기에는 국마목장이 발달하였고 사마목장의 존재는 그리 크지 못했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마목장이 무너져 허술해지면서 사마목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는 159개의 목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함흥의 도련포와 제주도의 목장은 중국 명마 생산지로 유명한 기북(冀北)에 비길 정도로 유명하였다. 그중에서도 제주도의 김만일이 운영하는 사마목장이 가장 유명하였다(남도영, 2003: 300).

김만일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전국 최대의 목장 지대였던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말을 사육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키우는 사업은 크게 번성하여 국영 목장을 훨씬 능가하였고, 말의 사육 수는 1천~1만여 필에 달하였으며, 국가에서 필요한 전마는 대부분 김만일이 사육한 말로 조달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김만일이 운영하는 사설 목장의 말들을 양마로 인정하여 종마로 보존하도록 하는 한

편, 여러 번의 헌마와 양마를 길러낸 그에게 2품의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처사만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김만일이 길러낸 양마에 대해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또한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였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 3) 선조 때의 마정과 헌마 과정

선조(1567~1608) 때의 마정은 초기의 혼란, 임진왜란 중의 전마 공급의 문제, 그리고 임진왜란 후의 마정의 민폐와 그 개혁안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남도영, 2003: 235). 선조는 제주도를 국가의 중요한 공물(貢物)이 산출되는 섬으로 여겼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일찍이 제주도에 3명의 지방관을 파견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겹겹이 관방시설(關防施設)을 구축하여 방비하였다. 또한 제주마의 섬 밖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마의 경우 마필에 ‘父字’란 낙인을 찍어 철저히 규제하였다.

마필의 유실을 막고 관리를 위하여 말을 배에서 내리는 전라도 해진(현 해남·진도)의 입암과 어관포에 관을 설치하고 성을 쌓아 대비했으며, 심지어 말을 기르는데 소가 방해된다고 하여 제주에서 기르던 소를 육지로 내보낼 만큼 말을 기르는 데 주력하였다(『세종실록』 권45, 1429년(세종 11) 8월 26일, 『세종실록』 권61, 1433년(세종 15) 9월 9일, 김경옥, 2000: 9).

수년간에 걸친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목장은 대부분 황폐해지며 전마를 사육할 여건의 상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이는 전마 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전마를 확보할 방법은 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제주도에서 기른 말을 들여오는 것이었으나, 해마다 정해진 수량의 진상마와 국영목장에서 차출되는 수요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병조(兵曹)에서 임금에게 아뢰는 다음의 [사료 8]의 내용을 통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임하는 자는 전마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시위(侍衛)를 맡은 금군(禁軍)들조차도 말이 없어 그들의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사료 8]

“요즘에 역전의 용사로 전쟁에 임하는 자는 항상 전마가 없이 걸어서 가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고, 또 시위를 맡은 금군들이 한 사람도 말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 만약 전마를 나누어주어야 할 사람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태복시의 말을 계청할 수도 없고, 혹시 계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사에서는 가끔 말이 없다고 거절합니다(近來力戰勇士赴戰者, 每以無戰馬, 步往爲悶, 且侍衛禁旅之輩, 無一人有馬. … 如有俵(結) [給] 戰馬之人, 則不可每每啓請太僕之馬, 而雖或啓請, 本寺或以無馬爲辭).” [『선조실록』 권53, 1594년(선조 27) 7월 8일].

이처럼 전쟁 중에 국영목장이 붕괴되어 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기르던 사둔마(私屯馬)를 징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조성윤, 1992: 57).

이러한 정세의 불안정과 전마 공급의 어려움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을 때 ‘제주 사람’이 나라에 전마를 바쳤다. [사료 9]를 살펴보면, 제주인이 서울로 말을 직접 이끌고 올라와 말을 바친 사실에 임금은 그의 기개를 높이 칭찬하며, 무척 고무되어 상을 내리고 관직을 제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을 바친 시기는 1594년 4월로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2년이 지난 후이며, ‘직접 올라온 자도 있어’라는 표현으로 보아 제주도에서 여러 사람이 나라에 보낼 말들을 바쳤고, 말을 바친 사람 중에서 직접 말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보낼 말만을 바치고 직접 올라 가지는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기사에서는 ‘제주 사람’이라고만 언급할 뿐이며, 말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김만일’의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다. 『조선왕조실록』 기록 중에서 김만일 이름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사는 1612년에 이르러서이다[『광해군일기(중초본)』 권50, 1612년(광해군 4) 2월 8일].

[사료 9]

“제주 사람이 전마를 바쳐왔는데 해외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의기가 있으니 매우 가상하다. 아울러 상을 내리고 직을 제수하라. 기인이 또 직접 올라온 자도 있어 더욱 가상한 일이다. 그에게는 각별한 상을 내리도록 하라(濟州人納戰馬 海外有此義氣, 極爲可嘉 兼論賞除職 其人亦有親自上來者, 尤爲可嘉 此則各別論賞).” [『선조실록』 권 50, 1594년(선조 27) 4월 23일].

그렇지만 이 당시 말을 바친 사람 중에 김만일도 포함되었을 것이란 여러 정황이 있으며, 오히려 김만일이 말을 바친 일행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을 나라에 적극적으로 헌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만일은 언제 최초로 나라에 헌마했으며, 어느 정도의 말을 바쳤을까. 그리고 헌마한 공로로 나라에서 내려준 벼슬은 무엇이였을까. 이에 관하여 주장되는 학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장(山場)은 10소장 안에 있으니 1600년(선조 33)에 정의 사람 김만일이 사사로이 기른 말 500필을 헌상하여 동서별목장에 방목하니 즉 산장의 시작이다.” [제주문화원, 2005: 480].

② 김석익은 “처음 1600년(선조 경자년)에 정의현 사람 김만일[본관은 경주이다]이 자신의 가축을 번식 시켜 말 500마리를 바치니, 동서별목장[10소장 안에 있다]에서 길렀다. 그 공으로 만일에게 오위도총관을 내렸다(初宣廟庚子 旌義人金万鎰[其先慶州] 以私畜蕃息 獻馬五百匹 養牧于東西別牧場[在十場內] 以功賞万鎰五衛都摠管)”. [홍기표 등 역주, 2017: 142].

③ 김태능은 “김만일은 양마를 번식시킨 개인목장을 소유한 대목추가로서 그의 소유 마수가 10,000필에 달하여 한라산에 충만하였고, 목마로 한 시대의 대부호가 되었다. 각지의 국축마는 임진왜란 중에 소모·분실 등으로 없어져 군국의 중대 문제가 되었으므로 김만일은 종전 직후인 1600년(선조 33)에 자진하여 양마 500필을 국가에 헌납하여 이로써 동서별목장을 설치하게 하였다.” [김태능, 2014: 58].

④ 강용삼은 “김만일이 국난을 구하기 위하여 양마 5백 필을 헌상한 것은 선조 33년 경자년인 1600년의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적을 높이 사 초공으로 우상하여 그해 9월에 선조가 직접 한 자리에서 가선대부 오위도총부도총관 금위중절이라는 높은 벼슬을 제수하였다.” [강용삼, 1980: 115].

⑤ 남도영은 “김만일은 1594년(선조 27)에 전마를 국가에 바쳐 그 공으로 2품직 동지실직에 제수되고, 그의 아버지는 자헌대부로 추존되었고, 김만일은 임진왜란으로 말이 징발되고 유실되어 국영목장이 황폐해지자, 종전 직후인 1600년(선조 33)년에 자진하여 전마 500필을 국가에 헌납하였는데, 정부는 이로써 동서별목장[10소장 내]을 설치하였다.” [남도영, 2003: 303, 308].

⑥ 김봉옥은 “김만일은 임진왜란으로 말이 많이 필요한 것을 알고, 1594년(선조 27)에 전마 500필을 바쳤다.” [김봉옥, 2001: 146].



⑦ 『제주도지』에는 “김만일은 전란으로 말미암아 말이 필요함을 알아서 1594년(선조 27)에 전마 5백 필을 헌마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제주도, 1993: 857].

⑧ 『경주김씨익화군제주파세보』에는 “공은 불안정한 정국을 걱정하시고 국난을 구하고자 1600년(선조 33) 봄에 양마 5백 필을 헌상하였다. 조정에서는 공의 아름답고 큰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그해 9월에 가선대부 오위도총부 도총관 금위의 높은 벼슬을 제수하였다. 그해 말에는 자헌대부 중추부지사에 제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369].

⑨ 조성윤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지 2년 뒤이므로, 전쟁 수행에 절대 필요한 전마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 사람들 여럿이 조정에 말을 바쳤고, 그중에 일부는 서울로 직접 말을 끌고 올라가기도 했음을 알게 해준다. 이때 김만일이 말을 바친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시 제주도에서 사마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김만일이 가장 규모가 큰 목장을 갖고 있었다면 이 말을 바치는 일행이었고, 직접 올라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1600년에 바쳤다는 김석익의 기록은 1594년의 잘못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다. [조성윤, 2001: 115].

이외에도 고희범(2013: 64)은 “1594년(선조 27)에 군마로 쓸 수 있는 좋은 말 300필을 국가에 바친 것을 시작으로, 1600년(선조 33), 1620년(광해 12), 1627년(인조 5)까지 1,300여 필의 말을 바쳤다.”라고 하고 있다.

위의 학설을 살펴보면, 김만일이 처음으로 나라에 헌마한 시기에 관하여 1600년(경자년)과 1594년(선조 27)을 언급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말을 바친 동기에 관해서는 대체로 ‘국영목장이 황폐하여 말이 소모·분실되어 군국의 중대 문제가 되므로 불안정한 정국을 구하고 말이 전쟁 수행에 필요하므로 자진하여 전마를 바쳤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김만일은 헌마의 공로로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제수되었다’는 데는 의견이 거의 같으며, ‘그는 1만 필의 말을 소유하고 제주도에서 가장 큰 사마목장을 경영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헌마의 동기와 시기, 헌마의 숫자, 그리고 헌마를 한 공로로 제수된 관직 등에 관하여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만일이 헌마한 말의 숫자에 관하여, 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마치 김만일이 평생 헌마한 마필 수가 모두

500필뿐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학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김만일의 헌마 관련 서술 문헌

항목 (이름)	헌마동기	헌마시초 (년)	헌마 수 (필)	관직 제수	목장 규모
『역주 증보탐라지』 김석익	사사로이 기른 말 헌상	1600	500	헌마공신	
김태능	국축마 소모·분실로 군국의 중대 문제의 발생으로 자진하여	1600	500	-	대목축가, 대부호로 1만필의 말을 소유
강용삼	국난을 구하기 위하여	1600	500	가선대부 오위도총부 도총관 금위중질	-
남도영	국영목장이 황폐해지자 자진하여	1594 1600	500	2품직 동지실직 아버지에게 자헌대부 추존	-
김봉옥	나라에서 말이 많이 필요한 것을 알고	1594	500	-	-
『제주도지』	나라에서 말이 많이 필요한 것을 알고	1594	500	-	-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세보』	불안정한 정국을 걱정하여 국난을 구하고자	1600	500	가선대부 오위도총부 도총관 금위중질	-
조성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마를 비치고자	1594	-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마목장 경영

자료: 문헌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자가 구성.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료를 기초로 위에서 주장하는 학설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많은 말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김만일은 조정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정  
과 국방에서 없어서는 안될 전마를 헌마하면서 김만일은 중앙정부와 대신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만일은 언제 처음으로 몇 마리의 말을 왜 헌

마했을까. 그리고 현마한 공로로 조정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

1592년 4월에 조선을 침략한 왜군이 1597년 1월 정유재란을 거쳐, 1598년 12월 퇴각한 7년 동안의 전란으로 조선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였다. 대대적인 유망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농지와 목장의 참담한 황폐는 조선 사회를 그 밑바닥으로부터 붕괴시켰다. 이에 더하여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여 백성들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국가의 재정 역시 악화되었고 조세의 파악 근거인 호적과 양안마저 소실되어 버렸다.

육지에서의 참패 속에서도 각 지방에서는 유생과 농민들이 일어나 의병으로 봉기하여 왜군에 저항하였다. 충북 옥천에서 일어나 청주의 왜병을 격퇴하고 금산에서 적을 공격하다 전사한 조헌(趙憲), 경남 의령에서 기병하여 의령·창령 등지에서 왜적을 섬멸하고 진주에서 김시민(金時敏)과 함께 적병을 격퇴한 곽재우(郭再祐), 전남 장흥에서 거병하여 금산에서 전사한 고경명(高敬命), 수원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왜군을 격파하고 제2차 진주전에서 전사한 김천일(金千鎰), 함경도에서 활약하여 경성·길주의 왜적을 격파한 정문부(鄭文孚) 등은 그 당시 유명한 의병장들이었다.<sup>27)</sup>

이러한 의병의 활약에 힘을 불어넣으며 왜적에 저항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바로 제주의 전마가 있었다. 임진왜란 중에 제주의 전마는 관군은 물론 의병에게까지 공급되어 왜군 격퇴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1592년(선조 25) 6월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이 제주목사(濟州牧使)에 격문을 보내 제주의 전마를 요청했고, 그 아들 고종후(高從厚)도 전마를 보내달라는 호소한 바 있는 데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남도영, 2003: 236).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사료 9]의 내용 중 ‘제주인’은 누구이며, 몇 마리의 전마를 바쳤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김만일이 최소 수백 필의 말을 바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28)</sup>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첫째, 당시 김만일 이외의 제주인 중 대가 없이 수백 필의 말을 쾌척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전마에 해당하는 좋은 품종의 말은 대부분 김만일이 생산한 것이기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28) [주-D015] 김만일: 임진왜란 발생 후 전마 수급을 돕기 위해 1594년(선조27)에 말 200필을 헌납했다고 한다(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때문이다. 셋째, 이때 이후의 『조선왕조실록』 등 어떤 관찬 사료에서도 선조 때의 김만일이 아닌 다른 제주 사람이 나라에 말을 바쳤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왕이 전마를 바쳐온 사실에 매우 기뻐하면서 말을 바친 사람에게 관직을 주고 포상하라고 한 사실로 보아 바쳐온 말이 10여 필 수준의 적은 숫자가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5: 76).

이어 헌마가 있는 지 불과 2개월 후에 제주에서 100여 필의 진상마(進上馬)가 올라왔다 (『선조실록』 권53, 1594년(선조 27) 7월 8일). 전쟁에 임하는 역전의 용사가 전마가 없어 괴롭게 걸어 다녀야 하고 심지어 궁궐을 수비하고 왕을 호위하는 금군에게도 말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는 심각한 말 부족 상황에서 제주에서 올라온 100여 필의 말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았을 것이다. 특히 병조는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데도 100여 필 중에서 20~30필을 자신들에게 내려줄 것을 왕에게 간청하는 것으로 보아, 전마가 얼마나 귀했고 전마 한 필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 77).

이외에도 해마다 왕에게 특별히 바치는 별마(別馬)에 관한 기록에는 전쟁 중이라 이마저도 무사들에게 내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선조실록』 권67, 1595년(선조 28) 9월 18일).

생각건대, 여러 기록을 통하여 임진왜란 당시에 제주의 말이 전마로 올라가서 왜군 격퇴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가 있다. 우선, 이 글에서는 1594년에 처음 헌마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전에도 제주에서 말을 바쳤다는 기록들이 보이지만,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고 있다. 1594년 기록 역시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선조 임금의 전교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사람이 말을 바쳐 와서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기사(『광해군일기(중초본)』 권50, 1612년(광해군 4) 2. 8) 중에 “전에 진상(進上)한 공로(功勞)로 높은 관직을 제수받기까지 했으니”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에 진상한 공로’에 해당하는 기사가 바로 위의 [사료 9]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4) 광해군 때의 마정과 헌마 업적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광해군(1608~1623)은 내정과 외교에 비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그는 사고의 정비, 서적의 간행, 호패의 실시 등 그 치적에 불만한 것이 많았다. 한편, 밖으로는 후금이 만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국제 정세에 처하여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펴며 국제적인 전란에 빠져들어 가는 것을 피하였다(이기백, 1992: 283).

하지만 이 시기의 국영목장은 왜란을 겪은 혼란 속에서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붕괴하였고, 이에 더하여 관리들은 기강이 해이해져 말을 탈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사료 10]을 통하여 그 당시 목장의 피해 정도와 관리들의 부패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사료 10]

① 사복시 제조인 우의정 심회수, 연은부원군 김제남이 아뢰기를, “난을 치른 이후로 국마가 아주 적어서 평소의 10분의 1에도 차지 않는데, 하는 것은 많아 평소보다 몇 배가 되며, 각 고을에서 하는 것도 한결같이 형편없었습니다(經亂以來, 國馬甚少, 未滿平時十分之一, 而進獻浩大, 倍蓰平時, 各官分養, 一樣無形).”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16, 1609년(광해군 1) 5월 24일].

② “불행히도 병란으로 목장의 말이 줄어들어 중국에 진헌 할 마필도 부족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不幸兵亂, 場馬消縮, 進獻馬匹, 亦患不足).”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54, 1612년(광해군 4) 6월 19일].

③ “제주목사 변양걸은 본래 교만하고 외람된 사람으로 관마 10여 필을 훔쳐, 절반은 유배된 고언백의 아들에게 주어 해남에 있는 종 여러 구를 사들이고는 군관을 보내어 그 종들을 바다 건너 잡아 오게 하였으며, 절반은 자기 소유물로 삼아 관아 안에서 길렀는데, 스스로 그 죄가 무거움을 알고 병을 핑계 대며 직무를 폐기한 지가 벌써 여러 달이 되었으니(濟州牧使邊良傑本以驕濫之人, 偷竊官馬十余, 匹一半給與流配人高彦伯之子, 買得海南居臧獲累口, 發送軍官, 越海捉去; 一半占爲己物, 立養衙內. 自知罪重, 稱病廢衙者, 今已累朔, 極爲痛愕).” [『광해군일기』 권22, 1609년(광해군 1) 11월 12일].

④ “흙곡 현령 김담령은 흉년을 당한 해에 친족의 천장을 핑계로 본현의 인마를 조발하여 아주 먼 호남 지역에 보냈는데, 쇠마 한 필에 그 값이 목면 수십여 필에 이르렀습니다. 가난한 백성이 말을 세울 수 없으면 자신이 관아의 말을 세우고는 그 값을 민전에서 받으니, 작은 고을의 쇠잔한 백성들이 모두 도망하여 흩어졌습니다.

… 정의현감 이정경은 관마 여러 필을 훔쳐 좌우를 잘 섬기는 밀천으로 삼았으며… (歙谷縣令金聘齡爲人泛濫, 到任之後, 唯以侵漁爲事. 當此凶荒之歲, 誘以族親遷, 葬調發本縣人馬, 送于湖南極遠之地, 刷馬一匹, 其佃至於木綿數十余疋. 窮民不得立馬, 則自立衙馬, 受直於民結, 十室殘氓盡爲逃散…旌義縣監李禎慶偷取官馬累匹).” [『광해군일기』(중초본) 권22, 1609년(광해군 1) 11월 27일].

이처럼 광해군 때의 마정은 전쟁 후의 혼란과 관리들의 수탈과 부패로 인하여 국영목장은 붕괴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명나라의 원병 요청과 더불어 봉진 해야 할 공마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조선의 조정은 더욱 당혹스러워 했으며, 더 많은 전마를 확보하기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국가에서 필요한 말을 사마목장에서 공급받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어려운 상황에서 말과 관련하여 김만일과 김만일 사마목장이 조정의 관심과 주목을 크게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사복사에서 왕에게 제안하며 아뢰는 [사료 11]의 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료 11]

“대체로 근년에는 중국에 가는 각종 행차에 공마를 봉진하는 숫자가 지극히 많아서 숫자를 채우기가 매우 어려운데, … 조금씩 반급하다 보니 그 숫자가 점점 줄어 1년에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거의 다 처분됩니다. 심지어 각 목장의 말까지도 기본 숫자가 부족하여 새끼 번식까지 충분하지 못하니 백방으로 방도를 강구해 보아도 조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 삼가 생각건대 제주의 품관 김만일은 말 기르는 사업이 매우 번창하여 수천여 마리뿐이 아니어서 국둔의 3, 4배 이상입니다. 말을 놓아 먹여 번식시키는 곳이 모두가 국가의 토지이고, 전일 진상한 공로로 높은 관직을 제수받기까지 했으니 국가의 은혜 또한 지극하다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세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는 없으나 만약 본사의 말값 대용의 목면 30, 40동을 일에 익숙한 이마에게 주어 내려 보내 형편에 따라 구입하게 하면 그렇게 심하게 아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시급한 진상과 허다한 상전의 용도에 둘 다 편리하겠기에 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계책입니다(而大抵近年, 赴京各行次, 貢馬封進之數, 極爲浩大, 艱難充立, … 稍稍頒給, 厥數漸縮, 一年上來濟州馬, 殆盡區處. 至如各牧場馬, 元數缺少, 孳息不敷, 今雖百般料理, 而絕無措備之策. … 竊念濟州品官金萬鎰畜馬甚繁, 不止數千餘頭, 比諸國屯不啻三四倍. 放牧生息, 無非國家之土地, 前以進上之功, 至授腰金之秩, 國恩亦已極矣. 今雖不可遽開征稅之規, 若以本司馬價, 木三四十同, 付諸事知理馬下送, 隨便許賣, 不至斬固之甚. 此於時急進上及許多賞用, 兩爲便益, 出於不得已之計也).”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0, 1612년(광해 4) 2월 8일].



[사료 11]과 관련하여 몇 마리의 말을 사들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중국에 보내는 공마의 수가 증가하여 그 조달에 부심한 사복시에서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김만일 사마목장에서 말을 사들이자고 절박하게 왕에게 제안하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지 않은 상당한 수의 말을 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때에 조정은 국가에서 필요한 말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말의 대가를 치르고 사 갔지만, 말의 확보를 위하여 뾰족한 대책이 없어 결국 김만일에게서 말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1612년에는 김만일의 사마목장에서 국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말을 상당수 사 갔지만, 조정은 항시 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사들에게 전마를 지급해주지 못하거나, 역마(驛馬)의 부족 현상도 여전했으며, 명나라에 바치는 진헌마(進獻馬)를 마련하는 데에도 애를 먹으며 고심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무사가 가진 전마를 다른 관사(官司)에서 빼앗는 일도 발생하여 이의 방지 조치를 해줄 것을 왕에게 요청해 왕의 윤허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광해군일기(중초본) 권 73, 1613년(광해 5) 12월 24일].

이러한 와중에 조선을 둘러싼 주변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명나라의 세력에서 벗어난 여진족은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후금을 건국하고(1616) 명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조선에서는 선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광해군은 왕조 교체의 대륙정세를 간파하여 신중한 중립외교(中立外交)를 견지하여 국제적인 전란에 빠져들어 가는 것을 피하려 하였다.

그 한 예로 1618년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자, 명나라는 후금을 치기 위하여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을 때에 광해군은 강홍립(姜弘立)에게 1만여의 군사를 내어주어 출병하게 하였지만, 형세를 보아 항배를 정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다. 이에 강홍립은 명나라군이 불리하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후금에 항복하고 말았다. 이는 명나라의 요청을 들어주면서도 후금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명나라는 조선에 원병 요청과 더불어 수천 마리의 전마를 요구해서 조선 조정을 당혹스럽게 하였으며, 게다가 ‘강홍립 원명군’에 필요한 말을 확보하는 일도 골칫거리였다. 조선의 조정은 말의 부족 상태로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라 갑자기 많은 전마를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광해군은 결국 김만일의 사마목장에 기대어 다음의 [사료 12]와 같이 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마의 차출(差出)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사료 12]

“제주의 김만일이 개인적으로 말을 기르고 있는데 무려 1만여 필이나 된다고 한다. 수천 필을 잡아내 전마로 쓰고 만일에게는 넉넉히 상을 주도록 하는 일을 해조가 의논해 조처케 하라(濟州 金万鎰私養馬, 多至万余匹云. 數千匹捉出, 用於戰馬, 而万鎰優賞事, 令該曹議處).” [『광해군일기』 권129, 1618년(광해군 10) 6월 20일].

광해군 집권 당시에는 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으며, 말을 확보하고 차출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다음의 [사료 13]은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료 13]

광해군이 명령하기를 “양시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김만일에 대해서 조정에서 아뢰지도, 감사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먼저 형장을 치고 신문할 수 있단 말인가. 김만일은 공이 있어서 이미 2품의 직첩을 받았던 사람일 뿐 아니라, 또 동지의 실직을 지낸 사람이다. 그렇다면 양시현이 어찌 만일의 4 부자에게 한꺼번에 멋대로 무거운 형벌을 가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암말은 비록 한 필도 바다를 건너게 하지 말라고 전에 이미 하교했는데, 어떻게 감히 천여 필의 암말을 한꺼번에 점검해서 뽑아낼 수 있단 말인가. 양시현은 먼저 파직하고 추고하여라. 그 후임자는 계책과 사려가 있는 문관을 정밀하게 가려 보내라. 암말은 한 필도 내보내지 말고 수말만 잡아내 잘 점검한 뒤 속히 바다를 건너보내라고 하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부서에서 양시현을 차출해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당해관은 추고하여라. 지금부터 각도의 점마관은 모두 정밀하게 가려 차출해 보내고 암말을 취해 오면 법전에 실려 있는 대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더욱 신칙해서 엄금하게 하라(梁時獻不知何許人, 而金万鎰不稟朝廷, 不報監司, 徑先刑推乎? 万鎰非但有功人, 既受二品職帖, 又經同知實職. 則梁時獻何以万鎰四父子, 一時擅加重刑乎? 況雌馬則雖一疋, 勿爲渡海事, 前已下教, 則何敢千余疋雌馬, 一時点出乎? 梁時獻先罷後推, 其代以有計慮文官, 極擇發送. 雌馬勿爲出送一疋, 只以雄馬捉出, 速爲渡海点馬擇送事, 下教非一矣. 未知自何司差送時獻乎, 當該官推考. 今後各道点馬, 並極擇差送, 雌馬取來, 罪載法典之意, 更加申飭嚴禁).” [『광해군일기』 권132, 1618년(광해군 10) 9월 25일].

[사료 13]의 내용은 말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김만일과 그의 아들이 점마관(點馬官)에 끌려가 봉변을 당하는 예상하지 못한 ‘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광해군이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가해자에게 분노하며 파직(罷職)하고 추고

(推考)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광해군 집권 당시의 시대상을 단적으로 알 수 있음은 물론, 임진왜란 후의 수탈과 혼란 속에 관리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계속되고 있으며, 말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암말 반출을 금하여 말의 번식에 절치부심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이는 이 당시 말이 국방상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광해군은 김만일에 관한 일을 조정에 아뢰지 않았음을 질책하며, 양시헌(梁時獻)은 물론 그를 차출해 보낸 관청의 관리까지도 문책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광해군이 김만일에 대해 각별히 배려하며 보호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13]에서 당시 김만일 집안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왕권에 의해 김만일 집안이 보호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조성운, 2001: 60, 주14). 이처럼 김만일의 사마목장은 광해군의 보호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광해군의 김만일 사마목장 보호정책과 김만일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 각별한 것이었다(남도영, 2003: 243).

또한 광해군은 김만일의 사마목장에 절실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김만일 사마목장을 국가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다음의 [사료 14]를 통해 알 수 있다.

#### [사료 14]

“경략에 보낼 말은 이미 모두 채워 보냈다. 제주 김만일의 개인 목장 말을 모조리 거두어들여 점검하면 1,100여 필인데, 한꺼번에 몰아내오면 뒷날 불시에 용도가 있을 때 매우 염려가 된다. 그러니 단지 1-2백 필만 수말로 점검해서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우선 남겨 두어 기르도록 하라. 암말은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내보내지 말도록 각별히 강조하여 지시하라(經略前戰馬已盡充送, 則濟州 金萬鎰私屯馬, 盡爲搜括, 點出一千一百餘匹, 一時驅出, 則後日不時之用, 極爲可慮. 只一二百匹, 以雄馬點出以送, 其餘竝姑留養. 至於雌馬, 則雖一匹, 勿爲出送, 各別申飭下諭.)”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33, 1618년(광해 10) 10월 13일].

이 기사는 김만일의 국가에 대한 공헌도(貢獻度)를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여기에서도 광해군은 지난날의 ‘양시헌 파문’을 거울삼아 암말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

하여 말의 번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 뒤 김만일은 1620년 (광해군 12)에도 양마 500필을 바쳤으며, 이에 대해 광해군은 김만일에 대한 관직 제수를 속히 처리하라고 전교하고 있다.

[사료 15]

① “김만일이 서울에 올라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처치하지 않는가. 속히 처치하라는 (일을 해조에게 말하라.)’ 하였다. 【김만일은 제주의 부유한 백성이다. 말을 길러 (천) 만 필이나 되었으며, (나라 안의 좋은 말은 모두 그가 기른 것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말 5백여 필을 와서 바쳤기 때문에, 이런 전교가 있게 된 것이다. 그 뒤에 특별히 부총관에 제수되었는데, (부)총관은 곧 2품의 시위직이다. 사람들이 모두 (너나없이) 수치스럽게 여겼다】 (‘金萬鎰上來已久, 何至今不爲處置乎? 速爲處置(事, 言于該曹).’ 【金萬鎰, 濟州富民也. (以)畜馬(致產千)萬匹, (而國中良馬, 皆其所畜). 至是, 來獻(馬)五百(餘)匹, 故有是教. 其後特拜副總管, (副)總管卽正二品侍衛職也. 人皆 (莫不)恥之】 ).”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55, 1620년(광해군 12) 8월 15일].

② “김만일이 서울에 올라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처치하지 않는가. 속히 처치하라.’ 하였다. 【김만일은 제주의 부유한 백성이다. 말을 길러 만 필이나 되었으며, 이때에 이르러 말 5백여 필을 와서 바쳤기 때문에, 이런 전교가 있게 된 것이다. 그 뒤에 특별히 부총관에 제수되었는데, 총관은 곧 2품의 시위직이다. 사람들이 모두 수치스럽게 여겼다.】 (‘金萬鎰上來已久, 何至今不爲處置乎? 速爲處置’ 【金萬鎰 濟州富民也. 畜馬萬匹, 至是來獻五百匹, 故有是教. 其後, 特拜副總管, 卽正二品侍衛職也. 人皆恥之】 ).” [『광해군일기(정초본)』 권 155, 1620년(광해군 12) 8월 15일].

[사료 15] ①은 『광해군일기』 중초본의 내용이고, [사료 15] ②는 정초본의 내용이다. 위의 사료 중 【 】 괄호의 내용은 사관이 자신의 의견을 적어 놓은 부분이고, 중초본의 ( ) 안의 내용은 붉은 색 먹[朱墨]으로 덧칠하여 정초본에서는 이를 삭제하라는 것이고, ‘匹’과 ‘特’ 자는 검은색 먹[黑墨]으로 여백에 추가로 적어 두어 정초본에는 이를 첨가하라는 말이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5: 134).

여기서 양마 500필을 바친 김만일에 대한 사관의 논평은 중초본과 정초본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의 동일한 사실에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초본에서 사관은 “김만일은 제주의 부유한 백성으로 말을 길러 <천>만 필이나 되었으며, 나라 안의 좋은 말은 모두 그가 기른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초본에서는 이러한 사관의 의견은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광해군일기』는 다른 실록과 달리 이괄의 난(1624) 때 기초 사초가 불타 없어지거나,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5)으로 인해 실록 편찬이 지연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편찬되었다. 1633년(인조 11) 12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중초본까지는 완성되었으나 실록을 인쇄할 여건을 갖추지 못해 활자로 인쇄하지 못하고 일일이 붓으로 정서(正書)하여 1634년(인조 12)에 겨우 정초본 2질을 완성했던 것이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5: 133~134).

게다가 인조반정 후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광해군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기록할 리가 만무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중초본과 정초본의 내용상 차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사관은 광해군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광해군의 각별한 보호를 받았던 김만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서술하였으며, 최종본인 정초본에서는 중초본보다 더욱더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둘째, 김만일의 관직 제수에 관한 중초본의 ‘其後特拜副總管, (副)總管即正二品侍衛職也’에서 부(副)가 두 번 쓰여있다. 그런데 앞부분 ‘부’자에는 주목을 하지 않고, 뒷부분의 ‘부’자에만 주목 처리를 하여 정초본에서 이를 삭제하라고 하였으나, 정초본에서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위의 인용 구절에서 정이품에 해당하는 관직은 부총관(副總管)이 아니라 도총관(都總管)이다. 그러므로 앞뒤 ‘副’ 자 모두에 주목 처리를 하여 정초본에서 삭제해야 하는데, 이를 작성한 자가 혼동하여 ‘副’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만일의 관직과 관련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김만일에게 제수된 직책은 ‘오위도총부부총관(중2품)’이 아니라 ‘오위도총부도총관(정2품)’인 것이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5: 134~138).

이처럼 『광해군일기』의 오류로 말미암아 다음의 <표 7>에서와 같이 관직 제수의 내용에 오류가 반복되거나, 말을 바친 시기와 바친 말의 수에 혼선을 빚고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제주읍지』 인물조에 기록된 만력 경신년(庚申年)은 1620년이고, [사료 15]에서 보았듯이 김만일이 500필의 말을 바쳤던 시기가

다. 그리고 “헌마공신으로 관직이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이르렀다”라고 하므로, 1620년 이전에 이미 헌마공신(獻馬功臣)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김만일의 관직 내용 서술 문헌

문헌명	저자	관직 제수 관련 내용	저술시기(년)
『웅천일록』	박정현	“말 5백 필을 바쳤다고 불리보고, 지사총관을 제수하여 돌려보냈으니, 금의로 환향하였다 할 만하다(初三日金萬鎰到京 招見海外之人 獻馬五百匹 除授知事總管而還 可謂錦衣而歸也).”	1627
『제주풍토기』	이건	“말을 바친 공으로 관직이 부총관에 이르렀다(納馬有功官至副總管)”	1628~1635
『해외문견록』 김만일 목마조	송정규	“전후에 걸쳐 말 1,000여 필을 헌마했는데 조정에서는 언제나 관작을 주어 이에 보답하니 관직이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前後獻馬千與匹輒以官爵酬之官知中樞府事).”	1704~1706
『제주읍지』 인물조	관찬 (추정)	“만력 경신년에 헌마공신으로 관직이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이르렀다(萬曆庚申 獻馬功臣 官至五衛都摠府都摠管).”	1780~1789 (추정)
『제주·대정·정의읍지』 정의현 과환조	관찬 (추정)	“말을 바친 공으로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이르렀다(以獻馬之功 官至五衛都摠府都摠管).”	1793
『탐라지초본』	이원조	“말을 바친 공으로 벼슬이 도총관에 이르렀다(以獻馬功 官至都摠管).”	1841
『비변사등록』	관찬	“산마감목관을 예전에 시행했던 규정대로 헌마공신의 후손 중에서 임명하고 헌마공신 후손 이외에는 감히 임명해 보고하지 말라(山馬監牧官 一依舊規獻馬功臣本孫外 毋敢望報事也).”	1863
『승정원일기』	관찬	“제주 감목관은 바로 헌마공신 김만일의 후손 가운데에서 본목이 자백하고 있습니다(濟州監牧官, 則乃是獻馬功臣金萬鎰后裔中, 本牧自辟矣).”	1872
『정의읍지』 인물조	관찬	“만력 경신년에 헌마공신으로 관직이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이르렀다(萬曆庚申 獻馬功臣 官至五衛都摠府都摠管).”	1899
『탐라지』 권3, 정의현, 과환조	남만리	“헌마공신으로 도총관에 이르렀다(以獻馬功臣至都摠管).”	1902
『파한록』 상	김석익	“선조 庚子-일설에는 광해 庚申-에 말 500 필을 바치니 상으로 지중추 오위도총관의 벼슬을 내렸다.”	1921
『제주도목장사』	남도영	“1600년(선조 33)에 헌마공신의 호를 받았다.”	2003



「제주도 제주마」	제주도	“헌마공신의 호를 받은 것은 1620년(광해군 12)에 전마 500필을 헌마하여 받았다.”	2002
「역주 증보 탐라지」	역주 증보 탐라지 편찬 위원회	“선조 때에 말 5백여 필을 진상하여 동·서 별목장에 놓아길렀고 그 공로로 오위도총(五衛都摠)이 되었다.” 선조 때의 헌마공신.	2005
「제주마이야기」	장덕지	“1620년(광해군 12)에 전마 500필을 헌마하여 헌마공신의 호와 오위도총부부총관직을 제수받았다.”	2007
「제주말문화」	고문석 장덕지 양성룡	“1594~1600년(선조 27~33)에 전마 500필을 국가에 헌납하였고, 1620년(광해군 12)에도 500필을 바침으로써 왕으로부터 헌마공신의 호와 오위도총부부총관직을 제수받았다.”	2013
「제주도사논고」	김태능	“국가로부터 오위도총부도총관의 직을 제수 받았고, 종1품 승정대부가 되었다.”	2014
「개국일등공신 익화군 김인찬」	김성태 편지	“선조~인조 연간의 국난기에 개인적으로 사육했던 전마를 국가에 바침으로써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오위도총부총관(五衛都摠府摠管), 종1품 승정대부라는 고위직에 제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았음을 일단 확인할 수 있다.”	2015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한국학 중앙연구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 직에 제수되었다.”	<a href="http://people.aks.ac.kr/index.aks">http://people.aks.ac.kr/index.aks</a> , 검색: 2021년5월7일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한국학 중앙연구원	“조정에서 지중추(知中樞) 오위도총관(五衛都摠管)을 제수하였고, 벼슬은 이후로 계속 증직되어 1628년(인조 6)에는 종1품 승정대부(崇政大夫) 헌마공신(獻馬功臣)에 이르렀다.”	<a href="http://www.grandculture.net">http://www.grandculture.net</a> , 검색: 2021년5월7일
「승정대부 만일공 계하사목」		“계하 임금께서 계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계목 안에 전라제주 헌마공신 승정공 김만일은 경순왕의 후예이고 본조 개국공신 익화군 김인찬의 8세손이다(季下 教啓 目內 全羅濟州 獻馬功臣 崇政公 金萬鎰卽 敬順王 後裔 而本朝鮮開國功臣 益和君 金仁贊八世孫也).”	?

자료: 문헌과 자료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자가 구성.

그러면 언제 헌마공신이 되었을까. 이는 앞서 살펴본 [사료 9]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김만일이 선조 때 말을 바친 공로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의 관직을 제수받으면서 헌마공신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래 [사료 16]에서 보듯이 말 한 마리 힘으로 녹훈되어 ‘마공신(馬功臣)’이라 불렀던 사례도 있음을 고려하면, 선조는 수많은 말을 바친 공로로 김만일에게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의 관직을 제수하였고, 이때 헌마공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하겠다. 역주 증보탐라지 편찬위원회(2005: 480, 611)에서도 김만일은 선조 때 헌마공신이라 하고 있다.

[사료 16]

“녹훈도감이 아뢰기를, 출신 한천두는 이천으로 거동하실 때에 호종하면서 자기 말을 가지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모시고 갔으니, 그 공을 추가로 기록해야 합니다. … 한천두는 말 한 마리의 힘으로 정훈에 녹훈되었으므로 ‘마공신(馬功臣)’이라 불렀는데, <이것도 우대한 것이다.> (勳都監啓曰: 出身韓天斗扈從于伊川行幸時, 以其私馬, 奉廟社主行, 宜追錄其功 … 韓天斗以一馬之力, 得錄正勳, 謂之“馬功臣. <亦優矣.>).” [『광해군일기(중초본·정초본)』 권62, 1613년(광해군 5) 1월 27일].

이에 관하여 강제훈(2014)은 김만일이 ‘공식적’으로 헌마공신에 책훈된 바는 없다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2015: 167~172)에서 발간한 『그림을 곁들인 헌마공신 김만일 평전』에서 강제훈의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반론을 펴고 있다.

김만일이 가장 많은 말을 바쳤고 또한 정2품 관직에까지 이른 것은 광해군 때 이므로 광해군으로부터 헌마공신의 칭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고 있다. 왕이 헌마공신의 칭호를 내렸다면 사관(史官)이 이를 사초(史草)에 적었을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광해군일기』에 전하지 않는 이유를 『광해군일기』 편찬의 험난한 과정에서 찾고 있다. 즉 인조 즉위 초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사초가 불에 타서 유실되고 이어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발발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겨우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류(誤謬)와 누락(漏落)된 사실이 많음을 간과할 수 없고,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난 폐주(廢主)라는 정치적 이유와 함께 김만일이 변방 사람이고 사족(士族)이 아니라는 이유로 폄훼(貶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헌마공신’ 운운한 내용도 함

께 사라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셋째, 임금이 김만일에게 특별히 높은 관직인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임명한 데 대한 사관의 느낌과 생각이 김만일에게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중초본의 마지막 부분의 처음 내용은 ‘人莫下恥之’, 즉 ‘사람들 모두 예외 없이 모두 부끄럽게 여겼다’고 기록되었으나, ‘幕下’에 주목하고 그 자리에 ‘皆’자를 첨가하여 정초본에는 ‘人皆恥之’, 즉 ‘사람들 모두 부끄럽게 여겼다’로 수정하여 기록하였다. 이 구절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찬화·김천형(2002: 569)은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으며, 김봉옥 편역, 1986: 409)에서는 ‘사람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어쨌든 사관은 임금의 김만일에 대한 관직 제수를 폄하(貶下)하고 있으며,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초본에서 사관이 “김만일은 말을 길러 만 필이나 되었으며, 나라 안의 좋은 말은 모두 그가 기른 것이었다”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김만일은 수많은 양마를 길러내어 나라에 헌마했다는 사실은 조정 대신들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천일록(凝川日錄)』에는 김만일이 제수 받은 관직이 지사총관(知事總管)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추부의 지사 즉 지중부지사(정2품)와 오위도총부도총관에 동시에 임명한 것이다. 지사직도 다른 기관의 관리가 겸임(兼任)하는 자리이고, 총관직도 다른 기관의 관리가 겸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사직과 총관직을 겸직시켰던 것이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5: 146).

광해군이 김만일에 대한 관직 제수를 속히 처리하라고 전교하였으나([사료 15]), 관리들이 미적거리면서 조처를 취하지 않자 2주쯤 후에 [사료 17]과 같이 김만일을 포함하여 그의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관직 제수를 명하고 있다.

[사료 17]

“김만일이 말 500필을 바쳐왔으니 품계를 뛰어넘어 실직에 임명하는 동시에, 그의 아들 김대명은 수령을 제수할 것이며,<sup>29)</sup> 둘째 아들 김대성은 당상에 오르게 하고, 그의 손자 김여는 본도의 변장에 제수하도록 승전을 받들라[金万鎰獻馬五百匹, 超資實職除授, 其子大鳴守令除授, 次子大聲升堂上, 其孫金礪本道邊將除授(事, 捧承伝)].” [『광해군일기』 권156, 1620년(광해군 12) 9. 4: 고찬화·김천형, 2002: 569; 김봉옥 편역, 1986: 409].

[사료 17]의 내용 중 ‘품계(品階)를 뛰어넘어 실직(實職)에 임명’ 했다는 것은 기존의 동지중추부사(중2품)보다 한 품 상위인 정2품의 직책을 내렸다는 뜻이다. 정2품 중에서도 상계(上階)인 정헌대부(正憲大夫)의 품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김만일에게 제수한 직책은 부총관(중2품)이 아니라 도총관(정2품)인 것이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5: 138).

<표 7>의 『응천일록』, 『해외문견록』 김만일 목마조, 『제주읍지』 인물조, 『제주·대정·정의읍지』 정의현 과환조, 『탐라지초본』 등의 내용 등이 이러한 사실과 부합되는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광해군이 김만일에게 오위도총부도총관 직책을 임명한 1620년 9월 4일에 조정은 온종일 급박하게 돌아가며 시끄러웠다. 김만일에게 내린 관직에 대하여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번갈아 가며 거세게 반발하였고, 임명 철회를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사료 18]).

[사료 18]

“사헌부가 아뢰기를, ‘총관이란 직책은 병부와 서로 맞먹는 직책으로서 <군무를 전적으로 주관하는> 말은 바 소임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 직책은 문재나 국구만이 겸임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무재도 혹 한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평소 위망이 대단한 속장으로서 우러러 보이기가 마치 매추라기가 바라보는 회오리바람 끝 저 높은 하늘에 있는 큰 봉새와 같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털끝만큼인들 그 자리를 넘보는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김만일은 섬에 사는 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가 말이 천 승이고 집이 누만금의 부자여서 전후 바쳐온 말이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라도, 그가 바쳐온 수 만큼 금백이나 미포로 값을 쳐주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감히 그 보답을 베풀로 할 것입니까. 명기란 지극히 중한 것이고 공론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지위의 사람이 그와 나란히 하기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낭청들도 그의 부하가 되길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졸들 역시 비웃고 업신여

29) “金大鳴 万鎰之子武科官至宝城郡守”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김만일의 큰아들 김대명은 수령을 제수받아 보성군수를 역임하였다(남만리, 1902: 358).

길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다행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안겨주는 일이며 그의 불행일 뿐 아니라 바로 조정으로서도 불행입니다.> 청컨대 <빨리> 그 명령을 회수하시어 <명기의 중함을 나타내소서.> 하고,

사간원이 아뢰기를, ‘작상이란 바로 임금이 백성을 격려하고 무던 것을 갈아내는 도구로써 그것을 가볍게 시행하거나 함부로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김만일이 바다 밖의 미천한 인간으로서 말을 바치고 받은 벼슬이 총관에 이르렀는데, 총관이라면 금위에서도 청준한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조종 조에서부터 으레 명망 있는 공경에게 겸임을 시켰던 것으로 그가 차지하고 있을 자리가 원래 아닙니다. 그 정목이 한번 전과되자 식자들이 탄식을 하는 터인데, 게다가 또 지금 그의 자손들까지 당상으로 끌어올리고 수령을 제수하라는 하교까지 하시니, 이는 전고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난양과 속초의 일들을 불행히도 다시 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바라건대 빨리 그 명령을 거두시어 명기를 중히 여기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정을 참작해서 제수한 것인데 뭐가 그리 큰 잘못이겠는가. 너무 번거롭게 말라.’ 하였다. 【그 후 만일은 출사한 지 며칠 만에 가고 말았다.】 [司憲府啓曰: ‘摠管之職, 與兵部相等, (專掌軍務,) 爲任極重, 故自前兼是職者, 非文宰, 唯國舅得爲. 其中雖或有一二武宰, 而非威望素著之宿將, 仰視如斥鷃望大鵬於羊角扶搖之上, 安敢有一毫希冀之心乎? 金萬鎰, 海島中一丘氓也. 有馬千乘, 家累萬金, 前後獻馬之數, 不知其幾許, 隨其多少, 償之以金帛米布則可也. 何敢以官爵酬之? 名器至重, 公論可畏, (不但此也, 同列差與伍, 郎廳恥爲下, 吏卒笑侮之, 非渠之幸也, 乃渠之不幸也, 非渠之不幸也, 朝廷之不幸也.) 請(亟)還收成命. (以重名器.)’ 司諫院亦以萬鎰事, 論啓 (啓曰: ‘爵賞者, 乃人主勳世, 磨鈍之具, 不可輕施而濫授也. 金萬鎰以海外賤夫, 獻馬授爵, 至於摠管, 摠管則禁衛清峻之班也, 自祖宗朝, 例以名卿巨公兼帶, 則固非此漢所堪據者也. 政目一播, 有識竊歎, 今者又有子孫升堂上, 除守令之教, 此前古所未有之事也. 爛羊之誚、續貂之試, 不幸見之, 豈不痛哉? 請亟還收成命, 以重名器.’) 答曰: ‘參酌除授, 庸何傷也? 勿爲煩論’ 【後萬鎰出仕數日而去.】].” [『광해군일기』 권156, 1620년(광해군 12) 9월 4일: 고찬화·김천형, 2002: 569-570: 김봉옥 편역, 1986: 409].

사헌부와 사간원 관리들은 자신들의 요청을 광해군이 단호하게 물리치자 다음 날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사료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강하게 김만일에게 내린 관직 제수를 거두어 줄 것을 광해군에게 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전날에 김만일을 ‘섬에 사는 한 백성에 불과’하다거나, ‘바다 밖의 미천한 인간’으로 비하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날에는 ‘김만일을 섬 속의 일개 말 장사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면서 인신공격(人身攻擊)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만일의 자손들에게 벼슬을 내린 데 대하여도 전고(前古)에 없었던 일이며 ‘난양(爛羊)과 속초(續貂)’<sup>30)</sup>의 고사까지 인용하면서 명령 철회를 요구했던

30) 자격도 없는 아무에게나 벼슬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1년 4월 25일).

전날보다 더 나아가, 다음날에는 장사꾼 자손들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며 백성들이 모두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김만일의 자손들에게 내린 관직 제수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만일과 그의 자손들에게 내린 관직을 거두어 줄 것을 연이어 요청하고 있다.

[사료 19]

“사헌부가 아뢰기를, ‘김만일은 섬 속의 일개 말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그가 바친 말의 수가 비록 많게는 억뿐만이 아닌 정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에 걸맞게 줄 수 있는 상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 감히 관작을 그의 몸에만 가할 것이며, 게다가 총관이라면 그것은 금위에서도 질이 높은 자리로서 재신이 겸임해오던 터입니다. 그것이 오늘에 와서 금방 말 장사꾼에게 갈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제목이 한번 내려지자 듣는 못 사람들이 모두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식에게는 수령이요 당상관이고 손자에게는 변장이라니 그 은혜가 어떠한 것입니까. 더구나 백 리의 책임을 맡고 오마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 어디 장사꾼 자손에게 맞거나 한 일입니까. 세상인심이 하나같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서둘러 내리신 명령을 다시 거두시어 명기를 소중히 다루소서.’ 하고, 사간원도 탄핵하니, 답하기를, ‘국가가 공로를 보답하는 은전은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로의 경중에 따라 서로 걸맞게 상을 내리는 것이니 너무 번거롭게들 말라.’ 하였다[司憲府啓: ‘金萬鎰不過海島中一馬賈也. 獻馬之數, 雖多至不億, 自有相當可酬之賞, 何敢以官爵加其身, 至於總管, 則禁衛中秩高之職, 而宰臣之所兼帶也, 豈意今者遽及於馬賈之漢? 除目一下, 衆怒齊發, 至於子而守令、堂上, 孫而邊將, 此何等恩澤? 況百里之任、五馬之榮, 詎合於賈家子孫? 物情莫不駭異, 請亟還收成命, 以重名器.’ 司諫院亦劾之. 答曰: ‘朝家酬勞之典, 固非一道, 酌其輕重, 量宜施賞, 勿爲煩論.’]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56, 1620년(광해 12) 9월 5일].

광해군은 9월 4일에 이어 5일에도 “국가가 공로를 보답하는 은전(恩典)은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로의 경중에 따라 서로 걸맞게 상을 내리는 것이니 너무 번거롭게들 말라.”고 하면서 사헌부와 사간원 관리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위와 같이 시끄러운 일이 있고 난 뒤 3개월이 채 안 된 11월 24일에 김만일은 광해군에게 사직(辭職)의 뜻을 밝히는 상소를 올렸는데, [사료 20]의 내용을 보면 상소의 개요만이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 무슨 이유와 사유로 사직하겠다고 광해군에게 글을 올렸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사료 20]

“지사 김만일이 상소했다. 그 대개의 내용은 본직을 그만두고 본 고을로 내려가게 해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는데, 입계하였다. 【만일은 제주 사람인데 그에 관한 기록은 위에 나와 있다.】(知事金萬鎰上疏, 大概乞遞本職下去本州事, 入啓. 【鎰, 濟州人, 事見上.】).”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58, 1620년(광해 12) 11월 24일].

김만일이 사직을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와 사유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의 관직 제수에 반발하는 조정 중신들의 행태에 염증이 났을 것이고, 이미 70을 넘긴 고령이었기 때문에 직책 수행을 하는데 일말의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이며, 이러한 심리상태에 기반을 두어 상소했을 것이다. 김만일이 사직의 상소를 하자 바로 수리되지 않고 10여 일이 지난 후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검상(檢詳)<sup>31)</sup>이 영상(領相)의 뜻으로 아 되는 [사료 21]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사료 21]

“탐라도는 바다 가운데에 후미지게 위치하여, 고려 말부터 자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왕조 때도 길운절이 유인하고 위협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니, 지간간 일을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고을 수령이 책임자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마치 물과 불 속에 빠진 것처럼 소란하였는데 다행히 전하께서 그 실정을 통찰하시고 김만일을 돌보아 주시어 분수에 벗어나는 벼슬로 대우하시니, 섬 백성이 반드시 이 소문을 듣고 서로 감동 할 것입니다. 마침 김만일이 와서 하직 인사를 하기에 신들이 그의 소원을 물으니, ‘손자를 무겸 선진관에 상당하는 관직에 임명하여 섬으로 돌아가서 자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즉시 쪽지에 적어 병조에 이를 통지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비웃으면서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사 신들이 사정에 이끌려 부당하게 청하여 자연 공론이 공격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억지로라도 따라야 할 것인데, 하물며 신들이 말하는 바가 본래 섬 백성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려는 뜻에서 나왔을 뿐이니, 어찌 그사이에 사심을 품었겠습니까. 근래에 방백과 수령의 자리가 비면 사람들이 모두 머리가 터지도록 다투니 그 행태가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병조가 신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참으로 사정을 배척하고 막고자 하여 그런 것이니 가상하게 여길 일이고, 성낼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비웃음거리로 삼은 것은 조정의 체모에 부당한 듯하기에 감히 아쉽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바다 밖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소원대로 임명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해당 조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恥羅僻居海中, 自高麗末, 叛服不常. 在先王朝, 吉 節雲節誘誘將反, 往事可

31) 조선 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舍人), 하위의 사록(司錄)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년 5월17일).

鑑也. 近緣邑宰非人, 嗷嗷如在水火中, 幸賴聖明洞察其情, 眷顧金萬一 鎰, 待以分外之爵, 島中之人, 亦必聞風而(相與)感動矣. 適金萬鎰來辭, 臣等問其所欲願, 以其孫(相當)武兼宣傳官(等職)除授, (而去)誇耀島中. 臣等即書小紙, 通於兵曹. 今聞嘲笑不從, 設使臣等循私曲請, (自有公論攻治之地, 猶)當(委)曲從(之), 況臣等所言, 本出於慰悅島人(而止), 有何私意於其間(哉? 近來方伯、守令有闕, 則人皆破頭而爭之, 其態可羞.) 兵曹(不用臣等之言), 正欲排遏私情而然, 可嘉而不足怒也. 但嘲笑(以)爲資, 恐朝廷事體不當(然), 故敢啓. 答曰: 海外有勞人, 依願除授, 以慰其心可矣 令該曹從速舉行.” [『광해군일기』 권159, 1620년(광해군 12) 12. 5: 고찬화·김천형, 2002: 570~571: 김봉옥 편역, 1986: 410].

[사료 21]은 조정에는 김만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만일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만일이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그에게 따뜻하게 해주며, 김만일이 사직 인사차 들렀을 때 곧이 김만일이 소원을 물어 이를 광해군에게 전달하여 김만일의 손자가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이 되도록 애써준 사람은 영의정 박승종(朴承宗)<sup>32)</sup>이었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5: 142).

김만일은 오위도총부 도총관직을 사직하여 제주도로 내려온 지 약 2년 후인 1622년에 [사료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특별히 키운 네 필의 말을 큰아들 김대명을 시켜 광해군에게 올려보냈다. 김만일은 광해군이 자신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고 배려해준 은혜에 보답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말을 바쳤을 것이다.

광해군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대명에게 수령을 제수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김대명은 가의대부(嘉義大夫) 보성군수(寶城郡守) 겸 순천진관(順天鎭管) 병마동철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를 역임하였다(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375).

#### [사료 22]

“김만일이 네 필의 말을 특별히 키워 그의 아들 김대명을 시켜 서울로 올려보냈다. 대명은 전에 수령을 제수한 일이 있는데 전을 받들어 가자 하고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즉시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만일은 제주도 사람인데 <말을 많이 사육하는 자이다.> 말을 바쳐 은총을 바랐기 때문에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金萬鎰別養馬四匹, 使其子大鳴押領上送. 大鳴前有守令除授, 承傳加資, 待闕即授. (萬鎰乃濟州人. <多畜馬匹者,> 獻馬干恩, 故有是命).”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81, 1622년(광해 14) 9. 12].

32) 조선 시대 병조판서, 판의금부사,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 2021년 5월 17일).

이때에도 사관은 광해군이 김대명에게 수령을 제수하라는 명에 대해 “말을 바쳐 은총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원문의 내용 중 ‘獻馬干恩’의 ‘干’은 ‘于’의 오류로 보인다.

김만일이 이처럼 광해군에게 말을 바친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조선의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여 갔다. 인조가 무력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되는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년 3월 13일)을 시작으로 인조가 즉위한 지 불과 10개월 만인 이듬해 1월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 인조가 궁궐을 버린 채 도망하여 조정과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는 등 나라의 사정은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설상가상으로 후금의 3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공격하면서 발발한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년 1월 13일)에서 조선은 속수무책이었고, 인조는 1월 26일 강화도로 피신하는 굴욕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조정에서는 전마를 확보하기 위해 또다시 김만일을 부르며 논의의 중심에 두었고, 비변사(備邊司)에서는 급기야 그에게서 전마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에게 [사료 23]과 같이 아뢰는 상황에 이르렀다.

#### [사료 23]

“비국이 아뢰기를, ‘전번에 이귀 및 체신의 계사로 인하여, 출신 및 군사들에게 입방(入防)을 면제하기도 하고 보인을 주기도 하여 전마와 갑주를 준비하게 하고, 각도가 염초를 굵게 하고, 제주 김만일의 말을 가져다 쓰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대개 적을 막는 도구로는 전마와 갑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니 이것을 마련하는 방책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비록 김만일의 말이 1만여 필이라고는 하지만 한꺼번에 2천여 필을 가져다 쓰면 그가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이번에는 건장한 말 1천 필만을 가져오고 김만일에게는 자금을 올려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 하니, 답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 김만일의 말을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도 너무 많은 듯하다.’ 하였다(備局啓曰: “頃因李貴及體臣啓辭, 有出身及軍士, 或免防, 或給保, 以備戰馬、甲冑, 令各道煮取焰硝, 取用濟州 金萬鎰馬之議. 蓋禦敵之具, 莫急於戰馬, 甲冑, 其措備之策, 宜無所不用其極. … 金萬鎰之馬, 雖云萬數, 一時取用二千餘匹, 則渠不無缺然之心, 姑此取用壯馬千匹, 超其資級, 以慰其心, 亦似便當.’ … 答曰: ‘依啓. … 金萬鎰馬則取用千匹, 亦似太多矣.’).” [『인조실록』 권16, 1627년(인조 5) 6월 25일, 『국조보감』 권35, 1627년 정묘].

이때 비변사의 증신들은 1620년 광해군이 김만일에게 내린 관직 제수에 크게 반발하며 임명 철회를 집요하게 요청했던 그 당시 자신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증신들은 “김만일에게는 자급(資級)을 올려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아뢰는 정도로 그 당시 정세가 얼마나 절박했으며, 전마의 확보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인조가 비변사에서 제안한 ‘1,000필의 말을 가져다 쓰는 것은 너무 많은 듯하다’고 답하자, 비변사에서는 일주일 후에 차출할 말의 숫자를 6~7백 필로 줄여 차출할 수 있도록 왕에게 청하고 있지만, 인조는 그 보다 적은 4~5백 필 한도에서 가져다 쓰라고 명하고 있다([사료 24] ①).

[사료 24]

① “비국이 아뢰기를, ‘전일에 김만일의 말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은 너무 많은 듯하다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김만일의 말이 무려 1만 필이나 되는데, 이 말들이 국내에서 자라 땅에서 나는 풀을 먹으며 한라산 주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목축이 만 마리에 이른 것은 모두가 국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분의 9를 가져다 사용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만에서 천을 취하는 것이겠습니까.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이 불가함이 없을 듯한데 성교가 이러하시니 본주로 하여금 우선 건장한 말 6백~7백 필을 골라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4백~5백 필 한도에서 가져다 쓰도록 하라.’ 하였다(備局啓曰: ‘前日以金萬鎰馬千匹取用, 果似太多, 爲教. 萬鎰之馬, 多至萬匹, 居國之地, 食土之毛, 環漢挈一山, 殆將半焉, 則牧畜之滿萬, 無非國家之賜也. 雖十用其九, 未爲不可. 況萬取千乎? 取用千匹, 似無不可, 而聖教如此, 請令本州, 姑選壯馬六七百匹上送.’ 答曰: ‘限四五百匹取用’).” [『인조실록』 권16 권, 1627년(인조 5) 7월 2일].

② “비국이 아뢰기를, ‘제주에 거주하는 전 지사 김만일은 갑자년 이후로 바친 말이 2백 40필이나 되는데 아직 시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별도로 논상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 해조가 조사하여 시상케 하소서.’ 하니, 아뢰는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備局啓曰: ‘濟州居人前知事金萬鎰, 甲子以後所納之馬, 二百四十匹, 而未及施賞云. 當有別樣論賞之事, 請令該曹查考施賞.’ 答曰: ‘依啓’).” [『인조실록』 권19, 1628년(인조 6) 8월 11일].

그런데 [사료 24] ①의 “4~5백 필 한도에서 가져다 쓰라”는 지시가 있는 후 일년이 지난 1628년 8월 11일 기사([사료 24] ②)에는 “갑자년 이후에 바친 말이 240필이나 되는데”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갑자년은 1624년(인조 2)으로 이괄의 난이 발생했던 해이다.

위 기사의 내용만으로 볼 때, 우선 1627년에 인조의 지시대로 4~5백의 한도에  
서 말을 차출한 것과는 별도로 1624년 이후 1628년 사이에 차출한 말이 240필이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1627년에 4~5백 필의 말을 차출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더 줄여 말을 차출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일 1627년에 차출한 말이 240필이라면 굳이 3년 전인 ‘갑자년(1624) 이후에’  
란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나라의  
비상시국(非常時局)이라 어느 때보다 전마가 필요했을 것이며, 이때에도 김만일  
에게서 말을 차출하였고, 1628년에 이르기까지 4~5백 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말을 차출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여 갑자년 이후 1627년을 거쳐 1628년에 이  
르기까지 차출해간 말이 모두 240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1627년 인조의 지시에 따른 4~5백 필의 말을 차출한 것과는 별도로, 이  
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를 포함하여 1628년에 이르는 사이에 바친 말이 240필 더  
있었을 수도 있으나, 위의 사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사료 24] ②에서 말을 바친 김만일에게 시상해야 한다는 비변사의 제안  
에 인조는 윤허(允許)했으므로, 김만일의 직전 품계인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를 높여 종1품 하계인 승정대부(崇政大夫)를 제수하였다(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  
소, 2015: 158-159). 이러한 사실은 “1621년(광해군 13)에는 정헌대부를 제수하고  
1628년(인조 6)에는 종1품 승정대부를 제수하여 이름을 경향에 떨쳤다.”(경주김씨  
제주도종친회, 2005: 369)라는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상으로 인용한 『조선왕조실록』의 사료 중에서 김만일 관련 사료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조선왕조실록』 중 김만일 관련 기사

순번	구분	날짜	관련 내용	비고
1	『신조실록』 권50	1594. 4. 23.	濟州人納戰馬	
2	『광해군일기』 권50	1612. 2. 8.	濟州品官金萬鎰	정초본에 누락
3	『광해군일기』 권129	1618. 6. 20.	濟州金萬鎰私養馬	중초본·정초본
4	『광해군일기』 권132	1618. 9. 25.	而金萬鎰不稟朝廷	중초본·정초본
5	『광해군일기』 권133	1618. 10. 13.	則濟州金萬鎰私屯馬	중초본·정초본
6	『광해군일기』 권155	1620. 8. 15.	金萬鎰上來已久	중초본·정초본
7	『광해군일기』 권156	1620. 9. 4.	金萬鎰獻馬五百匹	중초본·정초본
8	『광해군일기』 권156	1620. 9. 4.	金萬鎰 司諫院亦以萬鎰事 金萬鎰以海外賤夫 後萬鎰出仕數日而去	중초본·정초본
9	『광해군일기』 권156	1620. 9. 5.	金萬鎰不過海島中 一馬賈也	정초본에 누락
10	『광해군일기』 권158	1620. 11. 24.	知事金萬鎰上疏	정초본에 누락
11	『광해군일기』 권159	1620. 12. 5.	眷顧金萬鎰 適金萬鎰來辭	중초본·정초본
12	『광해군일기』 권181	1622. 9. 12.	金萬鎰別養馬四匹 萬鎰乃濟州人	중초본·정초본
13	『인조실록』 권16	1627. 6. 25.	取用濟州 金萬鎰馬之議 金萬鎰之馬 金萬鎰馬則取用千匹	
14	『인조실록』 권16	1627. 7. 2.	前日以金萬鎰馬千匹取用 萬鎰之馬	
15	『인조실록』 권19	1628. 8. 11.	濟州居人前知事金萬鎰	
16	『인조실록』 권64	1719. 10. 17.	金萬鎰以納馬萬匹之功 今因萬鎰子孫世華之擊錚	
17	『정조실록』 권13	1782. 1. 14.	論金萬鎰之世牧	

출처: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한 후 연구자가 구성.



## IV. 김만일의 헌마 업적에 관한 현대적 평가와 활용 방향

### 1. 김만일의 헌마 업적에 관한 현대적 평가

역사에 큰 족적(足跡)을 남겼음에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그 존재감이 희미하거나 부각되지 않은 인물이 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김만일의 경우에도 그렇다. 일부 연구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2016: 201~203)의 김만일 관련 연구 용역에서 제주도민, 말 관련 기관 관계자 및 말 관련 학과 학생 등 300명(유효표본 28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 면접조사 결과 나타난 <표 9>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9> 김만일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면접조사 결과표

구분		빈도(명)	구성비(%)	비고
김만일에 대한 인지 여부	알고 있다	83	29.0	
	잘 모른다	203	71.0	
	합계	286	100.0	
김만일에 대한 인지 경로	TV/라디오 등 언론매체	18	19.6	
	인터넷	13	14.1	
	신문	11	12.0	
	과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32	34.8	
	기타	18	19.6	
	합계	92	100.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16) 연구용역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286명 중에서 203명(71.0%)이 김만일에 관해서 ‘잘 모른다’라고 답하고 있어, 김만일에 관한 인지도(認知度)가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말 관련 기관 관계자와 말 관련 학과 학생

이외의 일반 제주도민은 김만일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의 역사 속의 인물을 널리 알려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이를 역사인물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관찬 사료와 사찬 사료 등에 나타난 김만일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처럼 김만일에 관한 사료의 체계적 정리를 바탕으로 그를 현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역사 속에 잠들어 있는 인물의 삶의 흔적과 업적을 찾아내어 이를 계승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또한 역사의 의의(意義)가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를 비추어 보는 것이라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기록을 현대적 시각으로 평가하여 역사인물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사료들을 근거로 김만일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김만일은 국난극복(國難克服)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이 곧 국력을 상징했던 조선 시대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에서 필요한 전마를 도맡아 감당함으로써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일간제주』, 2017년 2월 23일).

즉, 김만일은 탁월한 목축가로서, 그의 사마목장은 한때 국마목장(國馬牧場)보다 번성하였고, 그가 키운 말[馬]은 왜란과 정묘호란 때 전마로서 나라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선조, 광해군, 인조 때 김만일이 경영하는 사마목장은 양마를 많이 산출하여 유명하였고, 말은 만 필에 이르고 그 규모[面積]는 인조 5년 무렵에 ‘한라산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따라서 당시 조신(朝臣)들은 나라의 좋은 말은 모두 그가 기른 목장에서 구하려 하였다(남도영, 2003: 300~301).

더욱이 김만일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존재감이 컸다는 사실은 사복시 관원이 임금에게 아뢰는 다음의 [사료 25]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복시 관원은 임금이 타는 큰 말은 모두 김만일 목장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김만일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향후 계속하여 준마 공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다[사료 25①]. 또한, 국용(國用)으로 쓸 준마의 공급처를 찾지 못한 조정에서는 김만일의 후손에게서 적정한 가격으로 말을 구입함으로써 김만일의 후손들에게

원망도 사지 않고 말이 흩어질 염려도 없어서 향후 관가(官家)에서 말을 공급받는 데도 편리할 것이라고 인조에게 아뢰어 승낙받고 있다.

[사료 25]

①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도는 비록 - 1, 2자 원문 빠짐 - 임금이 타는 큰 말은 모두 사설 목장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2, 3자 원문 빠짐 - 준수한 놈은 모두 김만일의 목장에서 잡아 온 것인데, 방금 제주 압마군 - 3, 4자 원문 빠짐 - 을 들으니 ‘김만일은 초봄에 죽고 그의 자손들 또한 모두 불초합니다. 그 때문에 말들이 흩어져 버려서 말을 진상하는 일이 극히 염려스럽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실로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니, 만약 앞으로 - 2, 3자 원문 빠짐 - 조치가 없으면 계속 공급하지 못하는 걱정을 필시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듣건대 똑같은 섬의 말인데도 준마가 관영 목장에서 - 2, 3자 원문 빠짐 - 하는 것은 잡종을 한 목장에 섞어 풀어놓는 바람에 암말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 2, 3자 원문 빠짐 - 이번 가을에 말을 점검할 적에 각 목장에서 몸이 6척이 되는 암말, 수말을 골라 별도로 - 2, 3자 원문 빠짐 - 만 들어 물과 풀이 풍부한 곳에 풀어놓고 별도로 군두를 정하여 각별히 신칙하되 4, 5년 동안은 잡아내오는 것을 - 2자 원문 빠짐 - 번식되기를 기약하도록 제주 목사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缺二三字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一島, 雖曰產馬缺一二用御乘大馬, 則無不資於私屯. 故卽今時立御缺二三字駿者, 皆是金萬鎰屯中所捉, 而卽聞濟州押馬軍缺三四字, 金萬鎰春初身死, 其子孫亦皆不肖, 因此馬群散落, 進上馬一事, 極爲可慮云. 其所云云, 實非孟浪, 如無前 缺二三字之舉, 難繼之患, 必不免焉. 且聞同是一島之馬, 而駿骨缺二三字於官屯者, 雜種混放一屯, 雌馬不好而致然云. 此言缺二三字今秋點馬之時, 各屯中擇得雌雄馬體滿六尺者, 別作缺二三字, 放於水草豐利之地, 別定群頭, 另加申飭, 限四五年缺二字提出, 期於蕃息之意, 濟州牧使處行移,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40책(탈초본 2책), 1633년(인조 11) 6월 4일].<sup>33)</sup>

②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 ‘옛날에 김만일이 살아 있었을 때 그의 목장의 말을 다수 잡아가지도 하고 혹은 - 몇 자 원문 빠짐 - 진상한 것이 많아서 여러 차례 상가를 받아 직위가 지사에 이르렀습니다. - 6, 7자 원문 빠짐 - - 4, 5자 원문 빠짐 - 고 이서가 제조였을 때에 올린 계사 중에, ‘김만일은 죽었고 그의 자손들도 모두 불초하여 이로 인해 말 떼가 흩어져도 수습할 리가 없으니, 사설 목장에서 공급받는 일을 끝내 시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말을 진상할 일이 극히 염려됩니다’라고 한 것도 이러한 뜻입니다. 국마의 목장은 산북(한라산 북쪽)에 있고 사마의 목장은 산남(한라산 남쪽)에 있는데, 말에게 먹일 물과 풀을 가지고 말하면 산북이 산남만 못하기 때문에, 산남과 산북이 모두 국가의 토지이지만 오히려 사설 목장에서 빌리는 것입니다. 모든 국용으로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역시 사마를 공급받았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설 목장을 금지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

3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 검색일: 2021년 5월 5일.

유가 있어서입니다. 만약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는 자가 주관하게 하되 김만일의 자손들은 반드시 주관하는 자에게 말하여 평균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해 준다면 말 목장은 - 1, 2자 원문 결락 - 말이 흩어져서 다 없어질 염려가 없고 자손들은 원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면 그들은 말을 잃어버렸다는 탄식이 없을 것이고 관가에서는 말을 공급받는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김만일의 말을 이처럼 처리하면 김만일 개인에게 해가 있을 듯하니, 본주의 목사에게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 往昔金萬鎰生時, 渠之屯馬, 或多數提出, 或數字缺多進上, 而以致累次賞加, 職至於知事, 六七字缺家之給價, 則亦可知其私馬之有關於四五字缺年, 故臣李曙, 爲提調時, 啓辭中有曰, 萬鎰身死, 子孫等亦皆不肖, 因此馬群散落, 無收拾之理, 私屯取資之事, 終無可施, 前頭進上馬, 極爲可慮云云者, 亦此意也. 國馬之屯, 在於山北, 私馬之屯, 在於山南, 以水草言之, 山北不如山南, 而山南·山北, 皆是國家土地, 尙且假借於私屯者. 凡有國用, 亦資於私馬, 故因以不禁之意, 誠有所在, 若使勤幹者主之, 而萬鎰諸子孫, 則必言于主者, 平均賣用, 馬屯□無散落殆盡之患, 子孫無可怨之事, 如此則渠等無失馬之歎, 官家有取資之便, … 傳曰, 知道.數字缺馬如是處置, 則似爲有害於私, 問于本州牧使).” [『승정원일기』 96책 (탈초본 5책), 1647년(인조 25) 2월 21일]<sup>34)</sup>

둘째, 국방과 외교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조선 전기 마정은 국내적으로 국방(특히 군마)의 기초였으며, 외교용으로도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매개체의 하나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 말은 국가 간에 주고받는 규모나 그 품종에 따라 전쟁이 촉발되거나, 우호 관계가 형성되었을 만큼, 외교 관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던 예물이기도 했다.

이는 “근년에 중국에 가는 각종 행차에 공마(貢馬)를 봉진(封進) 하는 숫자가 지극히 많아서 숫자를 채우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심지어 각 목장의 말 까지도 기본 숫자가 부족하여 새끼 번식까지 충분하지 못하니 백방(百方)으로 방도(方道)를 강구해 보아도 조처할 방책(方策)이 전혀 없다(『광해군일기(중초본) 권50, 1612년 2월 8일)”라고 아뢰면서, 제주의 김만일에게 그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김만일은 외교 문제 해결에서도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조선 최대의 목장으로서 나라의 군마 공급을 위하여 중시되었으며, 특히 마정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서, 국가의 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김만일과 그의 후손들의 헌마는 국방과 외교에 커다란 역

34)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 검색일: 2021년 5월 5일.

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마정사(馬政史) 및 마문화(馬文化) 발달에 공헌했다. 제주도의 목축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어 제주인의 개척으로 발전되어 왔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제주마는 그 수요가 증대하여 국·사영 목장이 설치됨과 동시에 한국의 마정사상 특기할 김만일의 사마목장과 관민합동(官民合同)의 산마장(山馬場)이 설치되어 제주도는 한국 최대의 말 공급지(供給地)로서의 기능을 다하였으며, 그 운영 사례는 전국 목장의 운영 기준이 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김만일의 사마목장은 1만 필에 가까운 말을 목양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전마를 공급하고 마종(馬種)을 개량하여 양마를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뒷날 산마장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남도영, 2003: 289).

또한, 김만일 사마목장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말 문화의 발달을 포함한 민족문화(民族文化)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에 말을 수출함으로써 인류의 마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마목장(馬牧場)은 세계적인 목장이라 할 것이다(제주도민속사박물관, 2004: 163).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말 산업 특구로 전국에서 최우선 지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김만일이 이룬 공적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는 김만일이 ‘말의 고장’ 제주의 상징적 인물로서 정사(正史)에 수없이 기록되어 현재까지 전하고 있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넷째, 조선 시대 일상생활의 다방면에 영향을 끼쳤다. 제주마는 선사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식용, 어승마, 운반, 국방, 교통, 통신, 외교, 농경, 제분, 종마 등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말갈기(갓, 冠), 말가죽(靴, 주머니, 아교), 말꼬리(줄, 악기 줄), 말 털(옷, 모자), 말 힘줄(造宮), 말기름(한약재), 말똥(연료, 비료) 등은 군수품·일용품으로 크게 이용됨으로써 일상생활에 기여했다(남도영, 2003:118). 이처럼 말은 인간 생활의 긴요한 수단이었으며, 일의 효율과 속도를 높여주었다.

다섯째, 탁월한 목축가(牧畜家) 및 대목장(大牧場) 경영자(經營者)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만일은 ‘조선 최고의 민간기업 CEO’라 할 수 있는 탁월한 목축전문가(牧畜專門家)인 동시에 경제적 부를 축적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선조·광해군·인조 때 현재의 남원읍 의귀리-한남리-수망리를 중심으로 조천읍·표선면 중산간

일대인 해발 400m 이상의 지대에 위치했던 목장은 한때 국마목장보다 더 크게 번성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일간제주』, 2017년 2월 23일).

그렇다면, 김만일의 말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또는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 26]에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사료 26]

“김만일의 말은 많아서 수천 필에 이르러 그 수를 셀 수 없다. 새로운 관리가 부임할 때마다, 체임 진상마를 김만일로부터 거두어 3년 동안 소중히 기르고 훈련시켰다가, 관직에서 교체되어 돌아갈 때 이를 가져가 임금에게 예물로 바친다. 김만일의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혹 진상에 합당한 것이 없을 때는, 관가에서 말 있는 집 아이를 가두어 말을 바치도록 강요한다. 이렇게 해서도 말을 얻지 못하면 채찍질이 뒤따르게 되고, 그 처를 가두어 그 자식에게 곤장을 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르지 않은 것이 없다. 더군다나 탐관오리는 진상을 빙자하여 무수히 말을 빼앗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다. 또 말 가운데 다소 빼어난 것이 있으면 삼읍의 원님들이 다투어 탈취하므로 좋은 말이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김만일은 말의 종자가 끊어질까 걱정하여 준마를 골라 일부러 그 눈에 상처를 내어 눈이 멀게 하거나, 혹은 가죽과 귀를 찢어서 병신마를 만들어 이것을 잘 보존하여 종마로 취하였다(金萬鎰之馬多至數千匹不可紀數 每新官之入去也 首徵遞任進上馬 於萬鎰三年俛(限?)養習才 而臨遞時進獻 萬鎰之雖多或乏 進上可合者則 自官家 囚家僅徵索如是而不得則 鞭扑隨之 以至於囚基妻杖基子 無所不至 若有貪污之官則 憑藉進上徵之無數 悉爲私用馬之 稍駿者輒爲三邑尉之所爭奪未有所遺 萬一恐基絕種 擇駿馬可以取種者 或盲基目 或割基皮與耳 然後乃能保存 而取種).” [이건, 「제주풍토기」, 『규창유고』 권11].

이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사또로 부임한 관리들은 체임마(遞任馬)의 용도로는 물론, 이에 더하여 자신의 사적유용(私的流用) 목적으로, 좋은 말을 취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만일은 좋은 말의 씨가 마를 것을 걱정한 나머지 기지를 발휘하여 이러한 위험을 현명하게 넘기고 있는 탁월한 목축 전문가이며, 통찰력도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그 종마(種馬)를 보존했고, 이를 통하여 계속해서 양마를 산출했다.

여섯째, 말 사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했다. 예전의 제주도의 목장은 전국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양마의 산출로 유명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목축업은 지배 세력이 부(富)를 이루는 수단으로 중요시했으며, 목축 경영에 뛰어난 사람이 부를 축적할 가능성도 높았다. 김만일은 목장경영에 성공하여 많은 말을 소유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조선 정부가 전란으로 말 부족에 시달릴 때 많은 말을



국가에 바쳤고, 그 공로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벼슬을 제수받았다. 이는 김만일 가문의 목장경영이 뛰어나 우수한 말을 많이 길러냈기에 가능했으며, 자주 책임자가 교체되는 국영목장에 비해 조직적인 목장경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데 양마 산출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다.

김만일 가문은 감목관직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내내 목장경영의 심각한 위협이었던 관리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로부터 넓은 목장 지대를 사용하도록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역 주민들을 목장경영에 동원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목장경영을 통해 국가에 말을 계속 바치는 한편 부를 축적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를 2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다(조성윤, 2001: 134).

일곱째, 기부정신(寄附精神)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적선지가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 즉,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라는 뜻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미친다는 말이다. 『주역(周易)』의 「문언전(文言傳)」에 실려 있는 한 구절이다. 김만일이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할 때 유언으로 이 말을 남긴 것으로 권무일의 역사소설에서 그리고 있다.

보우(普雨)의 제자 보현(普玄) 스님이, 명종 때 제주에 귀양 와서 참살당한 보우 스님이 묻힌 곳을 찾고자 30여 년간 한라산 주위를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고 떠돌이 중이 되었을 때, 김만일은 사재(私財)를 털어 절을 지어주었고 공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밖에 제주에 여러 절을 짓는 일에 보탬을 주었다. 그러나 그 절들은 숙종 때에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에 의하여 불타버렸고 몇 절에만 김만일의 송덕비가 남아 있다고 하나 이 또한 땅에 묻혀버렸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었고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향교, 서당 등 학교 건설에 많은 돈을 쾌척하였다(권무일, 2012: 223~224).

이에 대하여 유홍준은 “김만일의 현마는 김만덕(金萬德)의 구휼(救恤) 못지않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자신의 부를 나누어 써야 한다는 제주사람들의 각별한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인류학적으로 규명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다(유홍준, 2012: 432).

그렇다면 김만일은 왜 그렇게 많은 말들을 국가에 바쳤을까? 물론 국왕의 말을 바치라는 명령에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그가 왕이 명령을 내린 정도를 넘어서서 훨씬 많은 말을 매우 적극적으로 바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만일이 조정에 바친 말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당시 말의 시중 가격은, 조선 초기에 좋은 말 1마리의 가격은 면포(綿布) 500필 정도로, 이는 말 한 마리로 노비 3명을 살 수 있는 가격인 셈이다. 노비 1구(口)당 가격인 면포 150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것인 만큼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남도영, 2003: 256).

이는 김만일의 수많은 헌마가 어느 정도 국가의 재정적 국고에 기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좋은 말의 구매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재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만일이 평생 헌마한 수효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1651년(효종 2)에 안핵어사(按覈御史)로 제주에 왔던 이경억(李慶億)은 “駉牝三千多產水”라고 시(詩)를 지어 광해군 때 김만일이 말 3천 필을 바쳤던 일을 칭송했다(역주 증보탐라지 편찬위원회, 2005: 211).

그리고 『숙종대왕실록』 제64권 숙종 45년 10월 17일 기록에는 ‘1만 필을 진상’한 것으로 나온다. 물론 이는 많은 말을 국가에 바쳤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김만일이 나라와 조정에 기여한 공훈의 정도를 단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 할 수 있다(『일간제주』, 2017년 2월 20일).

평생 말[馬]과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했던 김만일이 83세로 세상을 떠나자(1632년 10월 20일) 조정에서는 영구히 제사하도록 명하여[不祧之典]을 명하여 의귀리 가묘에서 봉사(奉祀)하였다. 그 후 230여 년을 면면히 계승하여 오다가 의례제도가 고쳐짐[儀禮改制]에 따라 묘제(墓祭)로 봉심(奉審)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369).

‘김만일의 현마 업적에 관한 현대적 평가’와 더불어 김만일 분묘(墳墓)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묘는 음택(陰宅) 혹은 유택(幽宅)이라 하여 죽은 사람의 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자(死者)가 저승에서 사는 집이라는 뜻이다. 분묘, 즉 무덤은 시대와 지역, 신분에 따라 제각각이며 부르는 명칭 또한 다양하다.

이처럼 무덤이 사자가 사는 집 또는 쉬는 곳이라는 관념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므로, 그 집인 무덤을 지키고 가꾸는 조형과 조경의 역사도 그만큼 오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덤의 조형과 조경은 크게 나누어서 무덤의 보호·미화·기념표지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sup>35)</sup>



<그림 18> 김만일 묘 입구  
출처: 연구자 촬영(2019년 5월 1일).



<그림 19> 김만일 묘 전면  
출처: 연구자 촬영(2019년 5월 1일).



<그림 20> 김이흥 묘(좌)와 김만일 묘(우)  
출처: 연구자 촬영(2019년 2월 10일).

35)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1년 5월 6일.



김만일 분묘는 속칭 ‘서위남마루’라 불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773번지의 나지막한 구릉에 부모의 분묘(쌍분) 옆에 있다(<그림 19>, <그림 20>). 그의 묘는 N-5°-E로 거의 북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직경 5.4m, 높이 1.5m이다. 봉분 앞에 놓인 상석은 화강암 석재로 만들어졌으며, 크기는 길이 110cm, 폭 85cm이다. 외곽의 산담은 제주의 자연석을 이용해 폭 1.5m, 높이 70~80cm로 4~5단의 막쌓기로 이루어졌다. 길이는 동서 9.3m, 남북 13.3m 정도이다(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36).



<그림 21> 김만일 묘 비석(전면)  
출처: 연구자 촬영(2019년 5월 1일).



<그림 22> 김만일 묘 비석(후면)  
출처: 연구자 촬영(2019년 5월 1일).



<그림 23> 김만일 묘 문인석(동편)  
출처: 연구자 촬영(2019년 5월 1일).



<그림 24> 김만일 묘 문인석(서편)  
출처: 연구자 촬영(2019년 5월 1일).

묘비는 봉분 동쪽 담장에 거의 붙어 세워져 있다. 묘비의 전면에는 ‘송정대부 지중추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김공지묘(崇政大夫知中樞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金公之墓)’라고 새겨져 있으나, 후면은 글자의 마멸이 심해 판독하기 어렵다. 앞면의 글자도 선명하지 않다(<그림 21>, <그림 22>). 그래서 글자를 추측해 판독해야 한다.

원래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 품계의 명칭)·사(司: 소속된 관청)·직(職: 맡은 직분) 순으로 쓴다. 예를 들면, ‘대광보국송록대부·의정부·영의정’에서 대광보국송록대부란 ‘계’를 말하며 품계의 명칭이고, 의정부는 ‘사’를 말하며 소속된 관청을 말한다. 그리고 영의정은 ‘직’을 말하며 직분이 된다.

김만일은 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지냈고, 송정대부에 제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사직’에 따라 ‘崇政大夫知中樞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을 넣고 비문을 읽어보면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송정대부란 ‘계’를 말하며 품계의 명칭이고, 중추부는 ‘사’를 말하며 소속된 관청을 말하며, 오위도총부도총관은 ‘직’을 말하며 직분이 된다.

봉분 앞쪽 양측에 문인석(文人石) 2기가 있다(<그림 23>, <그림 24>). 키는 147cm 정도이다. 복두(幘頭)같은 모자를 쓰고 있으며, 눈은 부리부리하다. 귀와 코는 큼직하고, 입술은 다물어 결의에 찬 듯하다. 수염은 무성하게 가슴까지 흘러내리고, 두 손은 아랫배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다. 문인석은 제작연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선 시대 석상 연구에 중요하다(박용범, 2007: 37).

현재 김만일 묘는 봉분, 문인석, 비석 그리고 혼유석 등을 묶어 ‘의귀리 김만일 묘역’이라는 명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2009년 7월 29일).

## 2. 김만일 스토리텔링을 위한 활용 방향

이 논문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김만일에 관한 사료를 정리하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역사인물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향후 김만일을 역사인물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김만일 스토리텔링을 위한 분석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을 고려하고 담아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앞으로 역사인물자원으로서 김만일을 활용하기에 앞서 그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김만일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의 연장선에 있다.

사실 김만일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에서 의귀리를 중심으로 ‘말의 고장’ 테마 관련 문화권지구의 설정과 산마장의 잣성, 김만일 가묘터, 김만일 생가터, 김만일 분묘, 김만일 가게 소장 고문서 등의 역사유적과 유물을 제주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80), 제주관광공사(2014: 95~108) 연구사업에서도 김만일에 관한 스토리텔링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말의 고장 제주, 마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콘텐츠로 김만일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제고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김만일과 마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은 말을 소재로 한 축제, 게임, 캐릭터, 영상, 음식, 화장품, 힐링,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등 창의적 문화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김동전, 2015: 28~29).

이 중에서 김만일 묘역은 제주도 기념물 제65호(2009년 7월 29일)로 지정하여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다. 17세기 분묘의 산담과 봉분의 축조양식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는 역사성·예술성·학술성·경관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 한 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함과 아울러,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다. 이러한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전통·문화 등의 이해에 있어서 불가결한 문화적 자산임과 동시에 미



래 사회의 발전과 문화산업·문화관광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콘텐츠로서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적절한 활용의 도모는 국가와 국민,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책무라 할 것이다(김창규, 2017: 머리말).

김만일은 역사인물로 나라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여, 그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를 널리 알리고 역사인물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과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활용방안들이 점차 실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인물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를 현재의 우리와 공유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인물의 삶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삶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인물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조서현, 2011: 5~6).

스토리텔링이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내용과 기술, 매체를 아우르는 서사 방식이며, 특히 문화 콘텐츠라는 매체에 들어갈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기에, 출판물, 영상물, 게임물, 공연물, 전시물 등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 속의 인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윤유석, 2010: 303).

그렇다면 김만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될 수 있을까? 이는 김만일의 생애와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김만일을 통해 어떻게 제주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특수한 문화를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우선, 김만일을 다룬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김만일에 관한 조사와 분석이 체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선행연구도 이러한 조사와 분석의 중요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도출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 역사적 접근과 더불어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김만일 스토리텔링을 위한 제1차 분석에는 김만일의 출생과 가계의 내력을 포함한 연대기적 이해를 토대로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과 사건은 물론, 관련 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와 그에 관한 일화, 전설과 전해오는 이야기 등을 조사하여 이야기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0> 김만일 스토리텔링을 위한 분석단계

구분	구체적 내용
제1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만일의 내력과 그에 대한 연대기적 이해</li> <li>• 김만일 생존 시기의 역사적 배경, 사건, 기록 등에 대한 조사</li> <li>• 김만일 관련 일화,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조사</li> <li>• 김만일 관련 유물, 유적 등의 현황 조사와 학문적 고증, 검증 과정 진행</li> <li>• 김만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일반인의 인식 및 인지 상황 파악</li> </ul>
제2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장르 및 형태에 관한 논의 실시</li> <li>• 콘텐츠화 가능성을 극대화할 방안 모색</li> <li>• 콘텐츠의 성격에 부합하는 스토리 완성</li> </ul>

자료: 강민희(2017) 그림의 틀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내용 구성.

또한 김만일의 특성과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의 유물과 유적 등을 발굴하고, 그에 관한 현황조사와 학문적 고증을 거쳐 콘셉트 및 세부 주제와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김만일 스토리텔링의 구체적인 장르 및 형태에 관한 논의를 하여 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김만일의 성격을 극대화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쉽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를 완성해야 한다.

이러한 김만일 스토리텔링을 위한 분석단계는 기록 속에 머무르며 존재하는,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김만일을 오늘날의 대중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의 삶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게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V. 결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그 존재감이 희미하거나 부각되지 않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새로이 조명하고 현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역사인물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다.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은 그 자체로 현대인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주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지역문화자원이므로 홍보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논문의 주인공인 김만일은 조선 시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가 키운 전마를 나라에 헌마함으로써 국난극복에 크게 공헌하였고, 국방과 외교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마정사 및 마문화 발달에 기여했음은 물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그는 탁월한 목축가였고 대목장 경영자라 할 수 있다. 자기의 재산[馬]을 아낌없이 나라에 바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자발적으로 나라 사랑과 나눔 정신을 몸소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전형을 보여주어 제주인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시대를 뛰어넘는 역사인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일간제주』, 2016년 11월 26일).

그런데도 지금까지 김만일이라는 인물이나 그의 역사적 업적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표 9>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연구자는 ‘역사 속의 인물 김만일을 널리 알려야 하는 당위성(當爲性)과 알려야 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다’라는 문제의식(問題意識)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논문에 접근하였다.

앞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사료와 김만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찬, 사찬의 문헌 등을 고찰하여 김만일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김만일은 젊은 시절 제주 지역의 정병과 방답진 첩절제사를 지내면서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절감했으며, 전마 수요가 국가적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체감하여 선대 대대로 이어온 말의 개량과 번식에 전념하였다. ‘한라산 절반’이나 차지할 정도로 넓은

자신의 사마목장에서 양마를 많이 키워 이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헌마 하여 나라에 공헌했던 인물이다.

한편 김만일은 말을 감식(鑑識)·개량(改良)·번식(繁殖)하고 우수한 말을 종마로 만들 수 있는 탁월한 전문가의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공출과 가혹한 수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슬기로운 인물이었다. 그리고 제주에 입도(入島)한 익화군 김인찬의 셋째 아들 김검룡 이후 경주 김씨 가문을 크게 번창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행적과 공로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從二品),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도총관(資憲大夫 知中樞府事 兼 五衛都總府都總管, 正二品)을 역임했으며, 1628년(인조 6)에는 숭정대부(崇政大夫, 從一品)를 제수받음으로써 역대 제주인으로서 최고의 높은 벼슬에 올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위직 제수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유일하게 헌마공신(獻馬功臣)이 되어 시대를 초월하여 칭송을 받는 명예와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10: 129). 이에 그치지 않고 그의 후손들은 230여 년간(1659~1895) 산마감목관을 세습하면서 산마장을 경영하면서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전마 등을 도맡아 감당해냈다.

김만일이 말을 헌마하며 감당했던 시기를 포함하면, 무려 300년 가까이 나라에서 필요한 어승마는 물론 전마와 승용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을 감당해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마장에서 산출된 말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봉진마 2필과 3년마다 식년마 200필을 나라에 의무적으로 바쳐야 했다. 식년마는 나중에 300필로 늘어나기도 했다.

대략 계산해도 엄청난 수의 말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필의 말을 120회에 걸쳐 보낸 240여 필과 200필을 80회 정도 보낸 말 16,000필의 말을 합하면 16,240필이나 된다. 여기에 더해 김만일이 생전에 나라에 올려보낸 말을 포함한다면, 무려 20,000여 필에 이른다. 이처럼 특정 인물과 특정 지역에서 나라에서 필요한 말을 감당했던 사례는 조선 시대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거나,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의귀리지편찬위원회, 2016: 217~218).

이 논문은 사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조선왕조실록』의 사료를 위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에서 제주도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조선의 지배 질서에 어떻게 편제되었느냐는 특수성을 제주의 시각, 즉 지방사의 관점에서 검토하지는 못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 자체가 중앙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 2>에서 그의 젊은 시절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지만, 김만일의 젊은 시절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도 미비하였다.

또한 김만일의 나라에의 헌마는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230여 년간 이어져 왔는데 이에 관한 산마장의 검토는 지면상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이 연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더 진전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만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역사인물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1. 사서류

-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세종실록』, 『단종실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군일기(정초본)』,  
『인조실록』, 『숙종실록』.
- 『고려사』, 『국조보감』,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증보문헌비고』.
- 김상헌, 『남사록』, 박용후 역(1972). 제주교육 19, 제주도교육위원회, 126~127.
- 김석익 (1921), 「파한록」, 오문복 등 번역 (2011), 『제주 속의 탐라-심재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남만리 편 (1902), 『탐라지』 권3, 정의현 과환조, 358.
- 이건, 「제주풍토기」, 김계연 역(1976),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395.
- 이원조, 『탐라지초본(上)』, 제주교육박물관 (2007), 165.
- 이원조, 『역주 탐라록(中)』, 백규상 역주 (2017), 제주문화원, 260.
- 이유원, 「문헌지장편」, 김경희 역(1999), 『임하필기』 제20권.
- 이증, 『남사일록』, 김익수 역 (2001), 제주문화원, 143~144.
- 송정규, 『해외문건록』, 김용태·김새미오 옮김 (2015), (주)휴머니스출판그룹. 104,  
221.
- 조정철, 『정헌영해처감록』, 김익수 역 (2006), 제주문화원.
- 박정현 (1627), 『응천일록』 권2.
- 역주 증보탐라지 편찬위원회 (2005), 『역주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11, 480,  
511, 611.
- 홍기표 등 역주 (2017), 『역주 탐라기년』, 제주문화원, 142.



## 2. 단행본

- 강만익 (2018), 「제주의 목축문화」, 『제주학개론』,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320~342.
- 강용삼 (1980), 『제주의 인맥』, 태광문화사, 107~108, 113~115, 118~119.
- 고찬화·김천형 (2002), 『제주의 근대사: 조선왕조실록』, 성민출판사, 569.
- 고희범 (2013), 『이것이 제주다』, 도서출판 단비, 64.
- 권무일 (2012), 『현마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 평민사, 223~224
-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경주김씨익화군제주파세보』 권1, 경신인쇄사, 143, 273~274, 346, 364~367, 368~369.
-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5), 『경주김씨익화군제주파세보』 권2, 경신인쇄사, 5~22, 144.
- 김동전 (2001), 「남원읍의 역사와 문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사) 제주민예총, 157.
- 김봉옥 편역 (1986),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409.
- 김봉옥 편역 (1994), 『속탐라록』,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198, 220, 229.
- \_\_\_\_\_ (2001),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129, 146.
- 김성태 (2015), 『개국일등공신 익화군 김인찬』, 백산자료원, 33~34.
- 김태능 (2014), 『제주도사논고』, 제주대학교박물관, 58.
- 김창규 (2017), 『문화재보호법총론(개정증보판)』,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iv.
- 김홍식 (2007), 「익화군 소고」, 『경주김씨 종친회보』 9, 경주김씨제주도종친회, 63.
- 남도영 (1996),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395.
- \_\_\_\_\_ (2003),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33, 186, 235~236, 242~244, 256, 300~301, 303, 306, 308.
- 고문석·장덕지·양성룡 (2013), 『제주 말 문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13, 15.
- 문영택 (2017), 『탐라로 떠나는 역사문화 기행』, 도서출판 각, 74.

-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5), 『그림을 곁들인 현마공신 김만일평전』,  
 (사)현마공신김만일기념사업회, 41-42, 74, 76, 133~138, 167~172
- 서귀포문화원 (2009), 『우리 고장의 설촌 유래』, 디자인 전문회사 오디콤, 166.
- 신영대 (2009), 『제주의 오름과 풍수』, 백산출판사, 72~89.
- 유홍준 (2012),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창비, 432.
- 의귀리지편찬위원회 (2016), 『말과 굴의 고장 의귀』, 아트21, 86, 217~218, 333,  
 473.
- 이기백 (1992), 『한국사신론』, 일조각, 283.
- 장덕지 (2007), 『제주마이야기』, 제주문화, 169
- 장덕지·최미경(2020), 『제주 목축 역사 문화』, 도서출판 신우, 56.
- 장삼현·문복희 엮음 (2006), 『양평인물지(上)』, 향맥 제17집, 양평문화원,  
 46~47.
- 정보국 (1994), 『작명대전』, 가림출판사.
- 제주도 (1993), 『제주도지』 제1권, 811, 857.
- 제주도 (1988), 『제주선현지』, 162.
- 제주문화예술재단 (2010), 『제주, 몽골을 만나다』, 건원인쇄사, 129.
- 정수현 (2008), 「남원읍 각 마을의 형성과 변천,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266~290.
- 주영제 (1994), 『좋은 이름,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 미리언출판사.

## 2. 논문

- 강만익 (2007), 「조선시대 김만일 가게 산마장의 입지환경과 유적」,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22~35.
- 강만희 (2017), 「역사인물의 이야기 가치와 활용방안 검토-안용복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9, 동아인문학회, 49~74.
- 강제훈 (2014), 「조선 중엽 김만일의 현마 업적과 관직 제수」, 『역사와 담론』  
 70, 호서사학회, 1~36.

- 김경옥 (2000),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탐라지를 중심으로」, 목포대도서관문화연구소, 1~26.
- 김관철 (2011), 「현마공신 김만일 기록에 대한 고찰」, 『기쁜불휘』 12, 경주김씨제주특별자치도중친회, 70~109.
- \_\_\_\_\_ (2016), 「현마공신 김만일의 공적에 대한 조명과 평가」, 『제주의 시간, 그리고 사람 학술대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83~123.
- 김동전 (2015), 「현마공신 김만일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Jeju SpecialSelf-Governing Province, 22~29.
- 김익수 (2010), 「김만일가(金萬鎰家)와 이익가(李瀼家)의 혼인」, 『기쁜불휘』 11, 경주김씨제주특별자치도중친회, 154~167.
- 김일우 (2007), 「‘말의 고장’ 제주와 김만일 관련 역사자료 활용화의 첫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7-2, 한국사진지리학회, 1~11.
- \_\_\_\_\_ (2010), 「현마공신 만일공의 생애와 의미」, 『기쁜불휘』 11, 경주김씨제주특별자치도중친회, 109~127.
- \_\_\_\_\_ (2011), 「의귀리 지역 김만일공 관련 역사유적」, 『기쁜불휘』 12, 경주김씨제주특별자치도중친회, 58~69.
- 박용범 (2007), 「김만일 분묘와 생가터 및 가묘터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조사」,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36~41.
- 박원길 (2005), 「제주 습속 중의 몽골적 요소-조랑말의 뜻과 제주방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8, 사단법인 제주학회, 215~246.
- 오홍석 (1975),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46, 59.
- 윤유석 (2010),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역사인물의 대중화-안산 최용신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9, 인문콘텐츠학회, 301~325.
- 조서현, 「제주 유배인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5~6.
- 조성윤 (1992),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 2, 제주도사연구회, 51~65.

- \_\_\_\_\_ (2001), 「조선 후기 제주도 부자이야기 : 김만일 집안과 산마감목관」, 『제주도사연구』 10, 제주도사연구회, 111~139.
- 좌동렬 (2010),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40~43.
- 최명진 (2019), 「지역 역사인물 자원의 기록·보존·활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10~11.

### 3. 보고서

-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2015), 『우리나라 말 문화 향토자원 발굴에 관한 연구』, 234~235.
- 제주관광공사 (2014), 『제주마 역사인물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연구사업』, 95~108.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4), 『현마공신 김만일 표준영정 조사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0~15, 19~48.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6), 『제주 역사인물 전승 조사와 역사인물 자원화 방안』, 하나CNC출판, 1.
-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김만일과 그 가계 관련 역사유적·유물 중심으로』, 제주문화재연구소, 36. 80.
- 제주특별자치도 (2016), 『역사적 고증을 통한 제주 말산업 스토리텔링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137~149, 163~171.

### 4. 웹사이트

-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검색서비스, <http://sd.ngii.go.kr>.
-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culturecontent.com/dictionary>.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 5. 신문

「경기도 명산을 가다-유명산(마유산)」, 『경인일보』, 2013. 9. 13.

「제주 인물에 대한 재조명」, 『일간제주』, 2016. 11. 26.

「김만일의 출생과 백중」, 『일간제주』, 2016. 12. 5.

「김만일 가게의 입도 전 내력」, 『일간제주』, 2016. 12. 13.

「김만일 가게의 입도 후 내력」, 『일간제주』, 2016. 12. 13.

「김만일의 고향, 의귀리의 풍수(1)」, 『『일간제주』』, 2016. 12. 20.

「김만일의 고향, 의귀리의 풍수(2)」, 『일간제주』, 2016. 12. 27.

「김만일 생가터」, 『일간제주』, 2017. 1. 3.

「반득전 혈산의 유전(1)」, 『일간제주』, 2017. 1. 10.

「반득전 혈산의 유전(2)」, 『일간제주』, 2017. 1. 17.

「김만일의 성명학에 대한 단상」, 『일간제주』, 2017. 1. 24.

「조선시대 제주도와 제주마의 중요성」, 『일간제주』, 2017. 1. 31.

「김만일 관련 기록에 대한 소고」, 『일간제주』, 2017. 2. 20.

「김만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기념사업의 추진」, 『일간제주』, 2017. 2. 23.

## 5. 기타 자료

김덕진 (2002), 『연표로 보는 한국역사』, 도서출판 선인.

이홍식 (1993), 『한국사대사전』, 교육도서.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5), 『제주사 연표 I』, 일신옵셋인쇄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사)제주마연구소 (2014), 『제주의 물  
공동기획전』, 17.

## **【Abstract】**

# **A Study on the Life and the Achievement of Contributing Horses of Kim Man-il as a Historical Character Resource**

**Gwan-Cheol Kim**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wang-Joong Jeong)**

This thesis was studied to synthesize the life and the achievement of contributing horses of Kim Man-il(1550~1632) through the analysis of historical materials. As the saying goes, "If there is no historical materials, there is no history," historical material is the basis for constructing the contents of history. If there is no historical material or if it is not clear, the contents of history will also be empty.

The same is true of the characters in history. The study of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a person who lived in an era through analysis of historical materials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stitutes the history of the person and can prepare archetypes of local culture. In other words, a person who appears in history can create a future value as a local cultural resource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ultural industry and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refore, efforts to collect and analyze historical data on local historical figures who have made outstanding achievements and to aggregate them and use them as historical resources are of great value.



First of all, historical figures must be synthesized based on historical records to discover the uniqueness and value of resources and to broaden the scope of their uti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systematic analysis and organization of valuable historical data about the person concerned. In particular, the reason and background for recording the historical data were critically re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of Joseon and the historical situation.

Kim Man-il is a figure in history, and he has risen to high-ranking government posts with thousands of horses needed by the country in times of crisis. His activities are mainly scattered in official documents such a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other private documents.

In this thesis, based on the historical materials on Kim Man-il, he briefly examined his family and considered the background of his descendants' descent to Jeju Island. It also describes the journey of Kim Man-il's family to Jeju Island and the process of settling in Uigui Village in connection with 'the legend of Bandeukjeon'.

In addition, after reviewing Kim Man-il's records of serving as Jeongbyeong(a regular soldier) and performing Cheomjeoljesa(an official) in Bangdabjin, I reviewed and analyzed the process of pioneering the private ranch and dedicating horses to the country, focusing on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is, Kim Man-il's achievements of contributing horses, which had a dim or unremarkable presence to the general public despite the fact that he left a great trace in history, were evaluated from a modern perspective. In addition, before using various elements related to Kim Man-il as a historical character resource, the analysis stage for Kim Man-il's storytelling was presented.

The research in this thesis shows that Kim Man-il, a historical figure in Jeju,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national crisis by offering his own horses

to the country when the country was in crisis, and also contributed to national defense and diplomacy. He als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horse administration history and horse culture of Korea, and also influenced everyday life.

In addition, Kim Man-il was awarded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for his contribution to dedicating horses, and became the only 'a worthy retainer of Hunma'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achieved his social and economic status by becoming the highest official of all time.

Although this thesis is an analysis of the individual Kim Man-il appearing in history, it is hoped that it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eju and the central government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at the historical figure Kim Man-il will be used as a resource for historical figures in the region.